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 연구

2023 년 0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수 환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 연구

지도교수 곽 덕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0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수 환

박수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07 월

위 원 장 소 경 희 (인)

부위원장 우 용 제 (인)

위 원 곽 덕 주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68년 문교부가 발표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중등교육사 속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의 특징과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규모를 보여주는 문교부의 통계자료와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과 입시 준비 과정,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그리고 정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논의 과정과 도입과정을 보여주는 국회와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중학교 지원 경쟁률은 일류고등학교 동계진학이 가능했던 일류중학교들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입시 준비는 일류중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열의와 높은 진학률로 학교 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함께 작용하며 더욱 과열되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시준비 과정이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에서 중학교 입시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중학교 입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은 과외 반대 운동, 학원 정화 운동, 사도 정화 운동으로 나타났다. 문교부는 학생들이 과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는 방안과 문제은행식 출제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개혁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교과서에서만 출제되었음에도 일류중학교 합격을 위한 과외와 입시 준비 노력은 지속되었다.

중학교 입학시험 자체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무시험 진학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교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확장하기에는 중학교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1968년 4월, 대한 교련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건의안에도 문교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8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시책의 능률적인 시행을 위해 문교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년도 입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은 권오병 장관은 문교부 전체에 함구령을 내려 문교부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권오병 장관이 구성한 소수의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비밀리에 준비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과정 없이 대통령의 최종 인가를 받아 승인되고 발표되었다.

문교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일류중학교를 향한 교육열의 과열이 과도한 과외공부를 조장하고, 국민학교 수업을 형식화시키며, 학생들의 인격형성 결여를 야기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군을 설치하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교군 내에 있는 중학교에 추첨을 통해 입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일류중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식을 없애기 위해 일류중학교로 불리는 학교는 3년에 걸쳐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회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찬성하지만, 중학교의 수용능력의 부족과 평준화의 미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교부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급 증설과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원과 시설 평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고 언론에선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정책의 등장을 교육혁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기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들을 특집기사로 편성하였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본질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찬성하였으며, 국민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태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중학

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가 국민교육의 정상화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과외로 인한 음성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것은 사립학교였다. 학생의 선발권을 박탈당한 사립학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반대하였지만, 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교원의 인사와 학교의 인가에 대해 간섭하며 사학의 반발을 억압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2개월의 짧은 논의를 거쳐 세상에 공표되었지만,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준비라는 이상적인 목표 아래에서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 부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국민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문교부의 논리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였기에 제도의 시행 자체가 반발되기보다는 미흡한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중학교의 수용능력 부족과 평준화 미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당초 문교부의 계획보다 많은 학생이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자 중학교 공납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함으로써 중학교 진학 희망자 수를 줄여보고자 하였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문교부가 부족한 중학교 수용능력임에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사전 준비 부족을 가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해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발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학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문교부는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교부는 반발하는 사학에 경제적 원조를 끊는 방식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통제하였다. 국·공립 학교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미비한 사립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학들은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의 박탈에 반발하기보다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선택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을 냉각시키고, 일류지향성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한국 중등교육에 남겼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의 단선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은 서양이 중등교육 학제를 복선형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6-3-3-4의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단선형 학제는 학교 계통이 단일의 계통으로 일원화되어 계층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열려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법에서 지정된 단선형 학제만 보면 영국의 퍼블릭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과 같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한국 중등교육에는 명문대학교 진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고등학교들이 존재했다. 일류고등학교는 동계진학이라는 입학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류중학교-일류고등학교-명문대학교라는 출세의 길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중학교를 폐지함으로써 일류중학교와 일류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으로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좋은 공식적인 길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류중학교의 폐지는 한국 중등교육의 단선형 학제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한국 사학의 준공립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중학교의 설립은 사립재단에 맡겨져 있었다. 국민학교가 대부분 국·공립이었던 것에 반해,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전까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중학교는 학교 설립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학교가 원하는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선발하고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으로 사학은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사립학교는 행정적으로는 문교부에 국·공립학교처럼 평준화를 위한 통제를 받으면서, 사학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였다. 사학은 문교부가 요구하는 평준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위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사립학교 통제에 저항하지 않고,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학은 자율성이 줄어들고, 준공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로 인한 사학의 자주성 위축은 한국 중등교육에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의 냉각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고 중학교 진학 희망자는 문교부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중학교 진학률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전까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중학교 입학시험이라는 선별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누구나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 중학교에 지망하면 추첨을 통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학교 진학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류중학교를 향한 교육열을 냉각시키려고 도입한 추첨을 통한 입학방식과 일류중학교의 폐지는 한국의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중등교육이 팽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지만,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와 일류중학교 폐지 정책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단선형 학제의 성격 강화와 한국 중등 사학의 준공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 단계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구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열을 가열하였고, 빠른 중등교육의 팽창을 유발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가 한국의 입시정책 연구와 향후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교육열, 입시정책, 박정희,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학 번 : 2021-24731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문제 ····· 8

4. 연구방법 ····· 10

1) 분석대상 ····· 10

2) 분석 자료의 선정 및 수집 ····· 12

Ⅱ.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배경 ····· 14

1.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 ····· 14

1) 국민학교·중학교 개황 ····· 14

2)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양상 ····· 21

3) 중학교 입시경쟁에 대한 사회 반응 ····· 27

2. 중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 29

1) 해방 후 학제 개편기 (1945-1950) ····· 30

2) 한국전쟁기 (1951-1953) ····· 33

3) 한국전쟁 후 1950년대 (1954-1961) ····· 34

4) 제 3공화국 (1962-1968) ····· 37

Ⅲ.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과정 ····· 40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계획 ····· 40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대한 논의와 무산 ····· 40

2) 1968년 새 내각 구성 후 정책 전환 ····· 45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실시 ····· 47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 47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준비 ····· 49
3)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 55
3.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반응 ····· 59
1) 언론의 보도 ····· 59
2)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 60
3) 국민학교의 반응 ····· 63
4) 사학의 반응 ····· 66

Ⅳ.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교육적 영향 ····· 69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의 특징 ····· 69
1) 권위주의적 정책 도입 ····· 69
2) 수익자 부담 원칙 정책 추진 ····· 71
3) 사학에 대한 통제 ····· 74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유산 ····· 76
1) 단선형 학제의 성격 강화 ····· 76
2) 사학의 준공립화 현상 초래 ····· 78
3) 교육열 가열과 중등교육의 팽창 ····· 81

Ⅴ. 요약 및 결론 ····· 84

참고문헌 ····· 92
Abstract ····· 97

표 목 차

[표 Ⅱ-1]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 수 (1960-1965) ····· 15
[표 Ⅱ-2] 국민학교, 중학교 공·사립 학교 수 (1965-1968) ····· 16
[표 Ⅱ-3] 국민학교 졸업자의 진학상황 (1963) ····· 16
[표 Ⅱ-4] 중학교 학년별 학생 수 (1963) ····· 17
[표 Ⅱ-5] 1962년 서울대학교 합격자 배출 학교 순위 ····· 20
[표 Ⅳ-1] 중학교 진학률 추이 (1965-1974) ····· 8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 이후 한국 교육사에서 1968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8년은 국민교육헌장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된 해였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목표를 담은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부터 1990년대 중반 자취를 감출 때까지 한국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문서로 다루어졌다. 학교 교과서 앞부분에 인쇄되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암송을 강요함으로써 학교 공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반복적인 암송과 낭독을 통해 한국 교육에 존재하고 있었던 반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8년 7월 15일 문교부 장관이었던 권오병에 의해 발표되고,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된 입시제도였다. 문교부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국의 중학교 입학시험을 모두 없애고, 일류중학교로 불리는 학교를 폐지하며, 학군제에 의한 추첨제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었던 1968년, 의무교육과정은 국민학교까지로,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학교 교육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받는 교육이었다.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 중학교의 수용능력으로는 모든 국민학교 졸업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중학교 입학은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

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면 입학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학생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절차였으며, 중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바라는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검증 과정이었다. 1968년 이전까지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이라는 선별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나 보편교육의 성격이 아닌 선별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68년 7월 15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발표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에서 선별장치의 역할을 했던 시험을 일각에 사라지게 하였다. 더 이상 전기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면서 중학교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추첨에 따라 배정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가 아닌, 학군에 속해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추첨 결과에 따라 지망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계기로 전기 중등교육을 받는 것에 학업 능력은 검증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존의 교육사 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인식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학교 입시경쟁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0년대 중학교 입시문제를 일각에 해결한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1960년대 중학교 입시는 과열되어 있으며, 국민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것에 과중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통해 국민학교 학생들의 입시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중등교육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강무섭은 종래 국민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를 위한 과외공부로 신체 발달이 저해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에게 중학교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았다.[1] 정무용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단순히 입시제도 개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교육기반 확대를 통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입시 과열에 대한 대응 혹은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반의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근대 중등교육의 발전 역사를 볼 때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중등교육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필두로 한 서구에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19세기 유럽의 중등교육에서도 의무교육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등교육을 받는 인원은 증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중등교육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계급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하위 구분되는 '분절화'가 이루어졌다.[3] 계급에 따른 교육의 분절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교육은 복선형 학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 중등교육의 발전 역사에서 국가가 전기 중등교육 단계의 시험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엘리트 선별의 역할을 하던 학교를 폐교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현된 독특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서양과 구별되는 한국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는 입시문제의 해결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 시험을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가시적으로 중학교 입시경쟁을 사라지게 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정말 중학교 입시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의 본질은 일류중학교 지향성에 있었다. 동계진학이 이루어지는

---

1) 강무섭, 『한국의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대한사립학교장회, 1994 여름 통권 69호, 1994, 108-120

2) 정무용,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013, 116

3) 世界教育史研究會(編), 『世界教育史大系 25: 中等教育史 Ⅱ』, 講談社, 1976, 87-170

상황 속에서 1960년대 일류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류고등학교, 그리고 명문대학교로 입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학교 중 하나인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이 '창칼파동', '무즙파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경기중학교에 입학하면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결과 경기중학교는 폐지되었지만, 경기고등학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입시경쟁의 본질이었던 일류교 지향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류교 지향성을 내포하는 한국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8년 문교부가 발표하고 1969년도부터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중등교육사 속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선별장치 역할을 하고 있던 일류중학교와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이후 한국 중등교육에 독특한 유산을 남겼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의 특징과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규모를 보여주는 문교부의 통계자료와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과 입시준비 과정,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그리고 정부의 중학교무시험 진학제도 논의 과정과 도입과정을 보여주는 국회와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과정의 특징과 한국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가 한국 중등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문교부가 집필한 '문교사'[4]와 1960년대 정책연구[5]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0년대 중학교 입시문제를 일각에 해결한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실시 배경을 중학교 입시의 과열에서 찾고, 문교부가 제시한 시행 목표에 주목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이후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과 엮어 일류교 지향성을 약화시키는 평준화 제도로 분석하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6] 이 연구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일류교 지향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파악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평준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제도의 도입 목표는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이다. 국민학교가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되었다.[7] 정재걸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로의 개혁 이유는 철저히 "교육적"인 목적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8] 국민학교가 중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과외공부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중학교 무시

---

4) 문교부, 『문교 40년사 』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1988.
5) 정영수,『한국 교육정책의 이념(Ⅱ):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RR86-33), 한국교육개발원, 1986.
6) 강무섭, 『한국의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대한사립학교장회, 1994 여름 통권 69호, 1994, 108-120쪽.
한영환·이기호, 『과외비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5(1), 2001, 125-147.
정무용,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013, 115
7) 고맹선, 『중학교 무시험 진학문제를 조상에 놓고』, 교육제주, 1970, 76
8) 정재걸, 『제 3공화국 교육개혁과 정치』, 교육정치학연구, 1996, 33

험 진학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일류중학교 경기중학교 입학시험 문제 중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창칼파동', '무즙파동'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영수는 경기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두고 벌어진 '무즙 파동'과 '창칼 파동'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말한다.[9]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중학교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일류중학교를 폐지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일류중학교 입학을 위한 가정의 과외공부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이 과열되었다고 보았다. 중학교 입시경쟁은 과열되었고 일류중학교였던 경기중학교는 입학시험 문제의 복수정답과 관련하여 '창칼파동'과 '무즙파동'과 같은 파동을 겪었다고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가 입시가 과열되었다는 점은 지적하지만, 과열된 중학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다.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경쟁 실태는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 주체가 시험이라는 선발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교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당시 중학교의 부족한 수용 능력이었다. 이길상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는 충분한 수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학 기회를 개방하여서 학교나 학급의 대규모화에 따른 학습 지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10] 정영수는 중학교 무시험

9) 정영수,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 :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RR86-33)』, 한국교육개발원, 1986, 156

10) 이길상, 『20세기 한국 교육사』 집문당, 2007, 472

입학제도에 의해 폐교가 결정된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경기여자중학교, 이화여자중학교를 제외하면 당시 6학년 학생 수가 중학교 수용 능력의 1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11] 오성철은 정책이 발표되고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정책 발표 이후 2만명이 늘었으며, 1969년 서울 시내 중학교에 부족한 학급은 약 232개였다고 분석하고 있다.[12] 요컨대 당시 문교부는 중학교가 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수용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교부가 정책 도입을 정당화하고 정책을 추진한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부족한 수용능력과 한계점에 대해 문교부가 어떤 논리로 대응하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문교부가 여러 일류 중학교를 일각에 폐교하고 학생들의 선발 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국민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말한다. 정무용은 한국 부인회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대한교육연합회는 전폭적으로 찬성하였다고 말한다.[13]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배정함으로써 중학교에서 선발원리를 사라지게 하였다.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받게 되었으며, 중학교도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했을 수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 학교의 입장이 더 폭넓

11) 정영수,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 :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RR86-33)』, 한국교육개발원, 1986, 162
12) 오성철 「한국인의 교육열과 국가」 오성철 편.『대한민국 교육 70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5, 46
13) 정무용,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013, 115

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나고, 그 목소리에 대한 문교부의 대응이 규명될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격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교육열과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는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등장하게 된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 상황과 문교부의 입시정책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취학규모와 학교 상황을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는 중학교 입시의 과열 문제가 중학교 입시경쟁이 절대적 교육규모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학벌주의와 결합한 교육열의 발현과 관계된 것인지 확인한다. 과열된 중학교 입시경쟁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의 모습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1968년 이전까지 중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문교부의 대응 상황을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검토한다. 과열된 중학교 입학시험과 문교부의 제도 개혁을 추적하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확인한다.

둘째,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과정은 어떠했는가?

앞서 살펴본 배경 속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누구에 의해 구상되었고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정책을 발표했던 문교부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와 정책을 발표한 권오병 장관의 발언을 담은 국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한 이후

이듬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문교부의 준비 과정도 확인한다. 이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었는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문교부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교육 현장에 있었던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도 살펴본다.

셋째,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어떠한 교육적 영향을 미쳤는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 선발 원리를 시험에서 추첨으로 바꾼 제도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추진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도입 과정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등교육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후 변화된 중학교 교육을 확인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의도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1960년대의 중학교 입시경쟁의 모습과 준비양상, 그리고 문교부의 중학교 입제도 개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1960년대 중학교 입학시험의 과열 양상과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 과정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중학교 입시에서 일류교 지향성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과열되고 있었는지 파악한다. 이어서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교부가 지난 입시제도 개혁에서 어떻게 과열된 입시문제에 대응하였는지 검토한다. 과열된 중학교 입시의 모습과 문교부의 대응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등장 전 교육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과정과 시행 과정을 살펴본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진 논의과정을 검토하여 무시험 진학제도가 논의되고 정당화된 과정을 확인한다. 이어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문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운 세부 방침들을 검토하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실시된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될 때 교육 현장의 반응도 살펴본다. 국민학교와 학생선발권이 박탈된 중학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집단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논의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검토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추구했던 목표와 실제 중등교육의 변화를 비교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목표와 실제 중등교육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의도한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역사 연구법을 따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기 전 교육 통계자료를 점검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 수화 중학교 진학 현황과 중학교의 수용능력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와 관련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문교통계연보』이다. 전국에서 가장 중학교 입시경쟁이 과열되었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학교 상황과 중학교 진학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입시경쟁을 둘러싼 교육 주체들의 교육행위에 관한 자료로는 신문을 참고하였다. 신문은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과거의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써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1960년대 가장 대중화되었던 언론매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문 속에 드러난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과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 주체들의 교육행위를 파악하였다. 신문은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편, 정부의 성격에 따라 탄압받거나, 검열을 받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료의 한계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사료적 한계를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신문을 교차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수의 신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사실과 관련된 보도기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중학교 입시에 대한 의견을 다룬 사설들은 여러 신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과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안건으로 진행하는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록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점검하였다. 『국무회의 회의록』과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다루어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질의와 법 개정 관련 논의를 확인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와 구체적인 예산, 준비 과정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문교부령』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학생 선발 원리를 바꾸는 제도였기에 입시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학생 선발과 관련된 원

칙은 『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교육법』이 개정되었는지 법 규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와 결과를 점검하였다.

2) 분석 자료의 선정 및 수집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교육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교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문교통계연보』는 문교부에서 매년 발간한 통계자료로 해당 연도 한국의 교육통계들이 조사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4년 발간된 『문교통계연보』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는 1974년 발간된 『문교통계연보』까지 10년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1964년 발간된 『문교통계연보』부터 확인하였으나, 1964년 『문교통계연보』에는 1962년도 통계까지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통계 수치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검토할 수 있었다. 중학교 진학이 특히 과열되었던 서울의 통계자료는 1961년 발간된 『서울통계연보』부터 1974년 『서울통계연보』까지 14년의 통계자료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통계 자료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수와 구성비,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자의 진학 현황이다. 『문교통계연보』와 『서울통계연보』 를 확인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되기 전 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 교육 규모를 분석하였다.

교육 주체의 교육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한 신문은 196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4개의 신문 기사를 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1960년대 입시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60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는 1974년까지 중학교 입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 신문사가 제공하는 원문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였으며, 『경향신

문』, 『매일경제』는 창간호 이후 모든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주체의 교육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보도기사를 주로 활용하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견을 다룬 칼럼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8년 8월 6일 시행된 제59회 국무회의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목표와 시행계획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59회 국무회의 회의록』과 『제59회 국무회의 안건 철』을 검토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1968년 9월 3일 제7대국회 제67회 제1차 국회 본회의와, 09월 10일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그리고 제7대국회 제67회 제21차 국회 본회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대국회 제67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2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하였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1월 1일과 11월 2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대국회 제67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과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와 구체적인 예산 준비 과정을 검토하였다.

Ⅱ.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배경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해방 이후 중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점은 고수해 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해방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학생 선발 방식을 시험에서 추첨으로 바꾼 제도였다.

본 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어떤 입시경쟁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를 중심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의 과열 양상과 중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는 교육 주체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중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문교부의 대응도 주목한다.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하기 전 중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문교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하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

1) 국민학교·중학교 개황

1960년대 이전까지 문교부는 초등 의무교육 달성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 직전이었던 1942년 초등교육의 취학률은 47%에 그쳤고, 중등교육의 취학률은 초등교육의 5%에 불과하였다.[14]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취학률도 높지 않았지만, 중등교육 단계 이상의 교육은 일제에 의해 특히 억압되어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중등교육을 확충하기에 앞서 국민학교 6년의 초등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

14) 최광만 "근대 한국 교육의 역사적 맥락" 이종재 편저.『한국 교육 60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39

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문교부는 1954년부터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실행 결과 1960년도 국민학교 취학률은 9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추진된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현황을 비교한 다음 표를 살펴보자.

<표 Ⅱ-1>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 수 (1960-1965)

(단위: 개교)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1960	4,496	1,053
1961	4,653	1,073
1962	4,732	1,122
1963	4,835	1,114
1964	5,004	1,165
1965	5,125	1,208

(※출처 : 문교통계연보)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문교부가 국민학교 증설에 힘쓴 결과 1960년대 국민학교 수는 중학교 수의 4배가 될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설립 주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민학교는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문교부의 계획으로 증설되었기에 국·공립학교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중학교의 증설은 사립재단에 위임되었고, 사립중학교의 설립이 권장되었다. 1960년대 설립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공립과 사립학교의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국민학교, 중학교 공·사립 학교 수 (1965-1968)

(단위: 개교)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1965	5,125	5,050	75	1,208	695	513
1966	5,274	5,180	94	1,251	711	540
1967	5,418	5,322	96	1,314	739	575
1968	5,601	5,509	92	1,420	779	641

(※출처 : 1965-1968 문교통계연보)

표 Ⅱ-2에서 국민학교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은 매우 낮지만, 중학교에서 사립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로 운영되는 중학교는 국민학교에 비해 높은 학비가 필요하였다. 1960년대에는 국민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이었기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국민학교로 교육을 종결하고자 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국민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중 하나의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1963년 국민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비율을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자.

<표 Ⅱ-3> 국민학교 졸업자의 진학상황 (1963)

(단위: 명)

졸업자	진학 희망자	진학자				
500,268	263,718	계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기술학교	기타
		249,840	239,172	8,060	1,437	1,171

(※출처 : 1964 문교통계연보)

표 Ⅱ-3을 통해 국민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약 5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진학 경로는 중학교 진학이었다. 표 Ⅱ-3에서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당시 중학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학생 수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Ⅱ-4> 중학교 학년별 학생 수 (1963)

(단위: 명)

구분	계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37,189	155,682	81,507
2학년	224,669	148,368	76,301
3학년	204,772	136,474	68,298

(※출처 : 1964 문교통계연보)

1963년 중학교의 학년별 인원은 약 22만명이었다.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약 26만명임을 고려할 때 1960년대 중학교는 중학교 진학 희망자의 85%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학교는 모든 국민학교 졸업자를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중학교 진학 희망자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진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가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소위 일류중학교라고 불리는 소수의 학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 수용능력과 상관없이 일류중학교에 학생들이 편중되는 현상은 1950년대부터 지속되었다. 1950년대가 되면서 학생들이 중학교를 지원할 때 '좋은 학교', 이른바 일류교에 편중되어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신입생 수와 총지

원자 수의 차이는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일류중학교에 지원자가 집중되어 일류중학교 경쟁률은 전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중학교 입학 상황을 나타낸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 새봄 신학기에도 중·고등학교 입학의 길은 여전히 좁은 문을 통해야만 할 것인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서울시내 학교에 한하여는 그것은 학교와 학급수가 적은데서 나오는 입학 경쟁이 아니라고 서울시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서울시 학무과 중등계장은 말하기를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는 팔십오교에 이백칠십 학급 수용능력은 일만 육천 이백 명인데 금년 봄 서울시내 국민학교를 졸업할 학생 수가 일만육천여명 밖에 안될 것이고 부산 대구 등 각 지방에서 지원하여 올 학생의 예상 수가 사천명 가량이니 수용능력으로 보면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중학교 졸업생의 수와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비등하니 숫자로만 보면 별다른 경쟁이 예상되지 않으나 이른바 「좋은학교」를 선택하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테니 심한 경쟁은 여전히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15]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학교'로의 편중은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중학교 입학시험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어 있었고, 일류 중학교로 불리는 중학교들은 대부분 전기 입시를 선택하고 있었다. 전기에 중학교를 지원하고 떨어지면, 후기에 있는 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류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일류 중학교로 불리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경쟁률이 낮은 다른 후기 학교에 지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일류 중학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한 학생들은 다른 중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일류 중학교에 추가로 합격할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일류교에 낙방한 학생들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자.

---

15) 『朝鮮日報』, 「果然門은넓어젔나?」, 1954.2.11.(2).

전기학교에 불합격 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된다. 왜 그러냐하면 대학이나 중학을 막론하고 아직 후기 학교들이 남아있은 즉 이의 없이 후기학교에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으면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해질 것이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형들은 그러한 의사를 가지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 지망한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교와 학부형 간에 교섭과 절충이 공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지게 되며 따라서 여러가지 불미한 일이 발생케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의 근본 목표와는 어긋나는 사회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문교당국이나 학교 측이나 학부형들은 이 기회에 다같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16]

위 기사에서는 전기 중학교 입시에서 일류 중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후기 중학교 입시에 지원하기보다 전기에 낙방한 학교에 추가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학부형들은 전기 입시에서 처음 지망한 일류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일류 중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학부형들은 학교와 비밀리에 교섭하기도 하였다.

일류 중학교로 지원자가 집중되는 경향은 1960년대가 되면 더욱 심해진다. 중학교 수용능력은 국민학교 졸업생 모두를 수용하기에 여전히 부족하였지만,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정원 미달교'가 발생하였다. 지원자가 많은 일류 중학교의 경쟁률은 1950년대보다 상승했지만, 지원자가 적은 학교들의 경우 정원을 모집하기 위해 3차, 4차까지 추가 모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63년도 중학교 입학실태를 보여주는 다음 동아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자.

63년도 시내 남녀 중학교의 입학실태에 의하면 총 158개(야간부포함) 남녀 중학교 중 정원 미달인 무시험교가 절반을 넘는 94개교에 달

16) 『朝鮮日報』, 「學校選擇과 競爭心理」, 1955.3.16.(1).

하고 있고 대부분 전기 입학시험을 치룬 세칭 일류교가 평균 2대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정원 미달교는 3차 4차 전형까지 치르게 될 형편에 있어 이른바 「좁은 문」에 이상을 보였다.[17]

1963년에는 158개교 중 94개교가 정원미달교가 될 정도로 중학교 입학에서 일류 중학교에 학생들이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정원이 미달되는 중학교들이 폐교되기도 하였다.[18]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90% 수용할 수 있었던 1963년에도 학생들이 일류중학교를 선택하였던 이유는 일류중학교가 동계진학으로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경성제국대학 이래 최고의 명문 학교로 여겨졌던 서울대학교의 합격자는 소수의 일류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1962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10개 고등학교를 다음 표에서 살펴보자.

<표 Ⅱ-5> 1962년 서울대학교 합격자 배출 학교 순위

연도	출신 고등학교	서울대 합격자 수
1	경기고등학교	252
2	서울고등학교	144
3	경복고등학교	126
4	서울사범대부속고등학교	75
5	경북고등학교	69
6	경남고등학교	60
7	용산고등학교	59
8	경기여자고등학교	59
9	대전고등학교	48
10	부산고등학교	46

(※출처 :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1962년)

17) 『東亞日報』, 「中學入學에 奇現象 좁고도 넓은門」, 1963.2.20.(8).
18) 『京鄕新聞』, 「5개中·高校폐쇄」, 1963.2.23.(6).

1962년에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을 배출한 학교는 일류고등학교의 대표로 불리던 경기고등학교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10개 고등학교는 서울과 지방의 대표적인 일류고등학교였다. 1962년의 서울대학교 신입생 정원은 1,960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상위 10개 고등학교에서만 정원의 50%가 선발된 것이다. 일류고등학교는 압도적인 명문대학교 입학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명문대학교라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다.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류중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일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곧 좋은 동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소위 일류고등학교 졸업장을 타게 되면 장래성 있는 대학의 진학과 사회에서의 출세가 약속된 것으로 여겨졌다. 학생들에게 중학교의 수용능력이 확대되어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류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일류중학교 입시를 출세를 위한 인생의 최대 관문으로 여겼다.

2)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양상

1960년대 중학교의 학생 선발 원칙은 입학시험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력본위의 선발이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것은 학생이었지만,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중학교 입학시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국민학교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화여대 교육연구소에서 1964년 국민학교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평균 7시간 30분, 가정에서 4시간 30분 총 12시간 공부를 하고 있었다.[19]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취침 시각을 오후 11시, 기상 시각을 오전 6시로 계산하였을 때 산출된 시간으로,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시험이 가까워져 올수록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과외 공부의 도움을 받았다. 과외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6학년 때 과외 공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81%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과외 공부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입시 공부는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서울 시내 각 도서관 앞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려는 아이들이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도서관에 들어가고자 하였다.[20] 국민학교 학생들은 방학에도 쉬지 않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였다. 문교부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과중하게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막고자 방학은 학업을 쉬는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방학은 쉬는 기간이 아닌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고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겨졌다. 학생들이 방학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자.

>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마냥 즐거워야 할 여름방학이 오히려 수험 준비를 위한 과중한 과외공부에 허덕이게 되고 있어 이들 어린 마음은 즐거운 여름방학이 과외공부 「프린트」지와 맞씨름을 해야 하는 괴로운 방학이 되고 말았다. 서울 도심지의 주택가는 늘어선 「사설학관」으로 밀림을 이루고 있고 거기 모여든 「과외공부생」들의 행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어 사설학관의 단속문제와 과중한 학습에서 오는 건강

19) 고유자 외 『중학교 입학 시험에 관한 일 연구:Ⅱ.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연구 1964,20-65.
20) 『東亞日報』,「다가온入試『씨즌』 圖書館門도 좁아」, 1962.12.8.(7).

문제 등 문교당국의 효과 있는 장학정책이 요청되고 있다.[21]

학기 중과 방학 중에도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국정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부독본과 수련장을 활용하였다. 1960년 문교부에서 국민학교 어린이용 부독본으로 인정해 준 책자는 92종이었으며, 수련장은 30종에 달하였다[22].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부독본과 수련장을 학생들이 구매하여 공부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교과서와 부독본, 수련장, 과외 프린트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교과서와 부독본, 과외에서 나누어주는 프린트까지 모두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은 잠을 줄여서 공부에 임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했던 학생들은 잠을 깨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각성제 복용에 대해 보도한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자.

> “꼭 일류중학교에 넣겠다”는 자모들의 허영심은 피곤해 죽을 지경인 어린이들을 못살게 한다. J국민교 6학년 박경일(가명)군은 지난 봄부터 각성제인 「카페나」를 장기간 복용했다. 평소에 늘 잠이 많은 경일군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자니 “할 수 없었다”는 것. 얼마 후부터 경일군은 자다가 헛소리를 하게 됐다. 식은땀조차 솟아나고 눈은 빨개져서 비벼댄 탓으로 안질까지 생겼다. 병원에 다니면서 「노이로제」증세를 보여 10여일간이나 학교를 쉬어야만 했다. 그동안 어머니는 경일군의 건강에 유의하느라고 함께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음식이나 과일을 준비했다가 먹이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이 병까지 난 어린이는 체중이 36.25 밀로그람으로부터 5킬로나 떨어져버렸다.[23]

위 기사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밤잠을 깨기 위해 장

21) 『朝鮮日報』, 「童心의멍에·放學도괴롭다 課外공부의餘毒」, 1964.8.4.(4).
22) 『京鄕新聞』, 「副讀本에 억눌린 國民校生」, 1960.10.15.(3).
23) 『京鄕新聞』, 「入試戰爭 (上) 中學校준비」, 1964.11.6.(3).

기간 각성제를 복용한 결과 노이로제 증상을 호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복용하는 각성제가 소화기에 자극을 주어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 불면증, 불안, 두통, 중추신경 발육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복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4] 의사의 건강 경고에도 국민학교 학생들은 잠을 깨고자 각성제를 복용하면서까지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였다. 1967년 보건사회부가 서울 시내 도심지 8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학교마다 6학년 전체의 20%가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 각성제를 상용하는 학생 중에는 부작용으로 습관적 불면증이 생겨 수면제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성제를 복용하면서까지 준비한 일류중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 학생들은 정원이 미달된 중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할 수 있었으나, 후기 입시에 지원하지 않고 1년 재수를 하고 일류중학교 입학을 노리는 경우도 많았다. 문교부는 중학교 재수가 위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일류중학교에 지원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이 정원미달교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은 국민학교 6학년으로 재편입하거나 가정교사가 경영하는 강습소에서 공부하며 다음 해 입학시험을 준비하였다.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1년의 세월을 더 준비하여도 일류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를 위한 더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중학교 진학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과 과외비를 지원하였다. 서울시 교육연구소의 국민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외 수업료는 과외 형태나 규모에 따라 2천원에서 5천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2~3천원의 과외 수업료를 내고 과외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

24) 『京鄕新聞』, 「무서운 각성제 알아둡시다」, 1967.11.1.(4).
25) 『朝鮮日報』, 「入試準備에멍드는6學年生 20%가 覺醒劑복용」, 1967.10.31.(7).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도 담당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학부모의 역할을 당부하는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 입학기를 앞둔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서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잡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부방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정신적인 자극이나 타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읍니다. 시험 때는 잠이 부족해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기관도 약화되기 쉬우므로 어머니들은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의로써 메뉴를 짜며 가끔 별식으로 입맛을 돋우고 소화하기 쉬운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해주어야겠읍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한 다음에는 자녀를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입시 기일을 앞두고 어머니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성의를 다해야겠읍니다. 결국은 노력과 성의가 이길 것입니다.[26]

위 기사에서는 학부모에게 입시가 끝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원할 것이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고, 수업 생활로 입맛이 떨어진 자녀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수험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식주의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들을 뒤에서 지원하였지만, 자녀를 일류중학교에 진학시키려는 열기가 큰 경우 학구제를 위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60년대 중학교 입학 성적은 서울 도심 학교와 변두리 학교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구제를 위반하여 입학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를 일류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가짜 기류계를 내고 학구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류국민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기도 하였다.

---

26) 『京鄕新聞』, 「자녀의 진학문제」, 1961.1.18.(4).

국민학교는 일류중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중학교 진학률이 높으면 일류 국민학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중학교에 잘 진학시키는 교사에게 6학년을 연이어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중학교 진학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진학 전문 교사에 대해 보도한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자.

> 국민학교 교사들 중에는 「6학년 전문업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전문 업자란 남다른 교수법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의 기술자라는 것. 저학년에서 소홀히 다루어 99도 모르는 6학년생도 있는데 이들을 한 해에 바로 세워놓을 수는 없다는 것. 그러므로 20여회의 모의고사로 개인의 성적을 판단하고 다른 학교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중학교별 배치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27]

「6학년 전문업자」로 불렸던 학생의 진학 선택을 맡은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배치고사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중학교 지원 방향을 상담하였다. 배치고사나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였으며 학교별로 시행 횟수는 상이하였다. 학교별로 시험 빈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 시내의 거의 모든 학교가 6학년을 대상으로 배치고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시험점수에 따라 아동들의 지망학교를 결정 짓기 위해 실시하는 이 「배치고사」는 시내 거의 모든 학교의 6학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 고사 실시 설에 자극된 시교육위원회는 3일 하오 긴급전통으로 고사 실시를 중단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까지 했으나 모 국민학교에서는 아랑곳 없다는 듯 3일에 이 시험을 실시했었다.
>
> 지난 3일 이 시험을 실시했다는 모 국민학교의 경우를 보면 6학년 전체 어린이(1180명)을 상대로 전과목(7개 과목)에 걸쳐 실시, 입시 때의 학교 선택에 참고하기 위한 테스트를 했으며 어린이 한 사람 앞에 최

27) 『京鄕新聞』, 「學校周邊에얽힌秘話 卒業과入學·雜賦金과課外授業」, 1962.12.7.(5).

저 1백원씩 모두 10여만원의 수험료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8]

일류중학교에 많은 학생을 보내고 있던 덕수국민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배치고사 문제를 약 3,000문제 준비하고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매일 1~2회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29] 학교에서 실시되는 배치고사와 모의고사 수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가정에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학교별 중학교 배치고사는 중학교 지망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험료에 대한 저항 없이 배치고사를 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학교에서는 중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 대신 배치고사가 시행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시험의 대상이었던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 각 교육 주체가 개인의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더욱 과열되었다. 학생은 일류 중학교 진학을 위해, 학부모는 자녀의 출세를 위해, 학교는 명문이라는 명성을 위해, 교사는 개인의 실속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었다.

3) 중학교 입시경쟁에 대한 사회 반응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입시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특히 일류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수면시간을 줄이고, 각성제를 마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건강은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자.

아직도 일류학교를 꿈꾸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실력은 생각지도

28) 『朝鮮日報』,「入試대목에 壓力試驗」, 1964.11.5.(7).
29) 『朝鮮日報』,「中學銓衡要綱 確定돼자 밀어닥친「入試寒波」」, 1965.11.4.(8).

않고 무리한 진학을 강해하려고 하여 2류나 3류교를 지망하는 가정에서도 아동들의 수험준비를 지나치게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교내의 과외수업이 폐지됨에 따라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교외에서 과외수업을 대행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다섯명에서 열명 정도를 한반으로 만들어 공동부담으로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교외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주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옆에 지켜 앉아서 독학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공부 만으로도 지쳐있는 아동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밥도 드는 둥 마는 둥 과외공부 하는데 좇아가서 밤 열한시 반까지 통금시간이 빠듯빠듯 차도록 무리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 내년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40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면부족과 피로와 영양실조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창 발육기에 있는 아동들이 수험 준비 때문에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심지어는 4,5학년 때부터 잠을 못자고 공부에 쫓기기만 하니 아동들의 건강은 말이 아니다.[30]

위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무리한 과외 공부를 하느라 수면부족과 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일과 외 공부는 학생 건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 과외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 공부 내용을 복습하는 일과 속에서 건강이 상하게 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중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과외 공부를 없앰으로써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문교부는 표면적으로 과외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강하게 단속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가정교사의 집이나 본인의 집에서 과외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1964년 11월 서울 충무국민학교에 다니던 3학년 강대용 학생이 과외 공부를 가다 버스에 치여 숨을 거두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30) 『朝鮮日報』,「督學에시달린兒童保健」, 1961.10.6.(4).

다.[31] 10살 소년의 사망이 과외 공부를 가는 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과외를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과외 공부를 반대하고 학원의 부정부패가 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운동도 등장하였다. 1966년 대구중앙국민학교 교사 최상덕은 동료 교사들과 과외수업, 잡부금 등으로 비난 받고 있는 교사 문화를 정화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사도정화운동을 제창하였다.[32] 사도정화운동은 대구시내 39개 국민학교 6학년 담임교사들이 과외수업, 잡부금 징수 등 학원에 뿌리박힌 부패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자는 결의를 담은 「6학년담임헌장」을 발표하며 전개되었다.

사도정화운동은 지방을 중심으로 번져갔다. 4월 14일 진주를 시작으로 부산, 순천, 광주, 춘천, 김천, 여수, 천안, 전주, 나주 등 10개 도시의 교사들이 사도정화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류중학교 입시문제가 가장 과열되었던 서울의 교사들은 사도정화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도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냐며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입장을 내세웠다.[33] 입시 문제가 가장 극심했던 서울에서는 국민학교의 정화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사도정화운동은 교사가 국민학교 교육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중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중학교 입학시험은 해방 이후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문교부는 입시지옥으로 불리는 중학교 입시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관리 주체를 바꾸거나, 시험 방법과 과목을 개정하는

31) 『京鄕新聞』, 「죽음부른課外工夫」, 1964.11.11.(7).
32) 『朝鮮日報』, 「大邱서「師道淨化의 旗幟든 崔相德 교사」, 1966.4.27.(2).
33) 『朝鮮日報』, 「學園淨化와「學生自律」運動」, 1966.5.12.(3).

방식으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개혁하였다. 본 절에서는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중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중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중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의 집권을 시대 구분의 분기점으로 사용한다.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의 집권, 두 사건은 중학교 입학시험의 관리 주체가 학교에서 국가로 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시기를 넷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학제 개편기: 1945-1950
한국전쟁기: 1951-1953
한국전쟁 후 1950년대: 1954-1961
제 3공화국: 1962-1968

군사 정권의 집권 이후 중학교 입학시험의 관리주체가 국가에서 시·도 단위 공동 출제로 변화된 시기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962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중학교 입시정책 변화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시기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시기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해방 후 학제 개편기 (1945-1950)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교육법이 제정되는 1949년까지는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학교 입시제도는 매년 개정되었다. 중학교 입시제도의 내용은 변화되었지만, 중학교 학생선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전제는 유지되었다. 1945년 중학교 입학시험은 해방 이전에 시행되었기에 해방 후 공식적인 첫 번째 중학교 입학시험은 1946년에 시행되었다.

오천석 문교부 차장은 해방 후 첫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서, 필답시험, 구두시험, 신체검사의 4가지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34] 오천석 차장은 필답시험의 범위는 국민학교에서 수업한 전 내용이며, 구두시험을 통해 지원 아동의 품격을 판단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방 후 시행된 첫 번째 시험인 만큼 기존 중학교 입학시험 과목인 일본어가 폐지되었고, 시험 과목은 13과목을 평가함으로써 지능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지침이 특징적이었다.[35] 입학시험은 7월에 시행되었으며, 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은 9월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1947년 서울시 학무국에서는 이전의 암송식 교육을 폐지하고 지능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중학교 입시 방침을 발표하였다. 평소 국민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잘 보지 못하여 중학교 시험에 낙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47년도 중학교 입시에서는 국민학교 조사서의 비중을 중학교 입학시험 총점의 50%를 차지하도록 배점을 늘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36] 중학교 입학시험은 국민학교 수업한 전 교과에서 출제되도록 하되, 암기식으로 출제하지는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새로 변화된 지능시험의 출제방식에 대해 불안해하는 반응들이 생기자, 서울시 학무국에서는 지능시험 출제 예시 문제를 공개하였다. 예시로 공개된 문제는 책상에 놓여있는 물건을 보고 기억하여 그 물건을 본대로 쓰거나, 시계를 그려놓고 틀린 점을 찾거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었는데, 이는 교과서 내용을 암송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37]

1948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지능고사를 실시하되, 1947년과는 다른 방식의 지능고사로 바꾸겠다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새로 변화되는 지능 고

34) 『東亞日報』, 「學科보다智能을主視」, 1946.6.8.(2).
35) 『東亞日報』, 「十三課目을綜合考試」, 1946.5.17.(2).
36) 『東亞日報』, 「暗誦式廢止코 智能試驗實施 調査書를試驗成績半으로」, 1947.5.24.(2).
37) 『東亞日報』, 「智能은그대로智能」, 1947.5.27.(2).

사 방식은 가려잡기, 메우기, 둘에서 가려잡기, 짝 맞추기 4가지 종류를 각각 다른 질문으로 만들어 시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의 답안을 외우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밝혔다.[38] 중학교 입학시험에는 상식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조선에서 가장 큰 고원 이름 셋을 써라', '마카오는 어느 나라에 있느냐?'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39]

1949년 중학교 입시제도는 학교장 조사서나 내신서 반영을 없애고, 순수하게 중학교 입학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실력본위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40] 국민학교 성적표가 우수한 학생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입학시험 점수가 중학교 당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50년의 중학교 입시제도도 중학교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문교부는 종래의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추상적인 질문들을 폐지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41] 또한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질문들을 피하고, 객관적인 채점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였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학제가 개편되는 동안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방침은 매년 변경되었다. 문교부와 서울시 학무국은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원칙을 하달하였지만, 실질적인 학교 학생 선발권은 각 학교에 보장되어 있었다.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출제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었다. 학제 개편기의 중학교 학생 선발에서 입학시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입학시험의 문제 출제방침은 매년 달라졌지만, 공통적으로 암기식 문제 출제를 지양하고 시험에서 학생의 지능이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

38) 『東亞日報』, 「中等入試智能考査 『가려잡기』 『메우기』 『짝맞추기』」, 1948.5.22.(2).
39) 『京鄕新聞』, 「어제中等校入試」, 1948.7.3.(2).
40) 『東亞日報』, 「中等學校入試要項決定 試驗은學力本位!」, 1949.5.26.(2).
41) 『京鄕新聞』, 「競爭率은約四對一」, 1950.4.15.(2).

2) 한국전쟁기 (1951-1953)

1950년 6월, 중학교의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전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문교부는 전시에 입시 혼란을 막고자 국가연합고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연합고시제도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국가에서 출제한 동일한 문제로 입학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중학교 합격생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국가연합고시제의 시행으로 1951년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로 동시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중학교 입학시험 지원 자격에는 피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미등교 학생과, 국민학교 6학년을 피란지에서 보낸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졸업하는 국민학교장에게 고사 원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피란지에 있는 학생들은 피란지 근처 국민학교장에게 고사 원서를 제출하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지원할 수 있었다.[42]

국가연합고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학교에 원서를 지원하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연합고시를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후 중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문교부는 전기와 후기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연합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전기의 일류 중학교에 편중되어 지원하였고, 성적을 받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학교 간 우열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1952년 문교부 장관은 중학교 입학고사에서 학교 간 우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국가연합고시가 실시되기 전에 입학하고 싶은 학교를 지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43]

---

42) 『朝鮮日報』, 「中學校入學考査」, 1951.9.8.(2).

1953년 중학교 입학시험을 한 달 앞두고 중앙교육위원회는 국가고시는 새로운 교육이념에 반대되며,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불신임 관념을 고정화시키고, 본래 입학시험 시행 권한이 교육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연합고시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중앙교육위원회는 다시 학교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44] 중앙교육위원회의 건의에도 문교부는 기존의 국가연합고시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963년의 중학교 입학시험은 기존 국가연합고시 방안과 동일하게 출제하되 명칭만 국가고시에서 연합고시로 개칭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전쟁기는 해방 이후 최초로 중학교 입시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기였다. 국가연합고시는 정상적인 중학교 입시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국가연합고시는 전국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평가받게 되면서 점수에 따른 지원학교의 서열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선시험 후지원 방식을 택한 것도 학교 간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3) 한국전쟁 후 1950년대 (1954-1961)

문교부는 1954년부터 국가고시를 폐지하고 국민학교에서 매년 2회 시행하는 학력고사 성적을 중학교 입학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45] 학생의 학력고사 성적, 면접 점수, 신체검사 점수를 종합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방침이었다. 학력고사가 중학교 입학성적에 반영되게 되자 중학교에서는 교장회의를 열고 문교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46] 학력고사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중학교의 반대에 문교부는 학력고사 성적

43) 『京鄕新聞』, 「考試前에 希望校」, 1952.2.25.(2).
44) 『東亞日報』, 「國家考試制를 廢止 中等敎立試」, 1953.1.18.(2).
45) 『京鄕新聞』, 「考試制는 廢止 明年度中學入試方法變更金文敎部長官」, 1953.8.24.(2).
46) 『朝鮮日報』, 「學力考査와中學入試 中學主張은不當 文敎部側」, 1953.12.15.(2).

순으로 모집 인원의 5할의 입학후보자를 선발하여 간단한 필답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시요강을 변경하였다. 문교부는 학교별 필답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의 범위는 국민학교 6학년 2학기에서만 출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지침을 세웠다.[47]

1954년 중학교 입시에는 학력고사가 반영되었지만, 중학교 학교장들은 여전히 학력고사를 반대하였다. 학력고사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의거한 중학교 학교장의 학생 선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 학생의 선발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중학교 입시는 전적으로 자유경쟁으로서 실시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특별유시로 시달하였다.[48]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유시로 중학교 입학시험의 관리 주체는 다시 각 중학교가 맡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발표 이후 중학교 입시 방안을 두고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중학교의 입장과 연합고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국민학교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1955년 중학교 입시에서 문교부는 중학교의 자유경쟁 원리에 따른 학생 선발 방침을 결정하였다. 문교부는 1955년 중학교 입학시험부터 국가의 획일적인 선발요령을 지시하지 않고, 특별시 및 각 도의 실정에 적합한 방안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49] 1955년 중학교 입시제도에서는 학교 지망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고, 중학교는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수학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신체가 불편한 학생이 아니라면 지망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여야 했다.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을 넘어서는 경우 입학시험의 시행은 각 중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자유경쟁 원리가 채택되면서 일류중학교로는 지원자가 몰리는 한편, 정원이 미달되는 중학교는 늘어나게 되었다. 일류중학

47) 『東亞日報』, 「中等校入試要綱決定」, 1953.12.24.(2).
48) 『京鄕新聞』, 「中學入試 自由競爭으로」, 1954.2.20.(2).
49) 『東亞日報』, 「中等入試要綱 文敎部서正式發表」, 1954.11.4.(3).

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과중한 과외 공부로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50] 과열된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1955년 문교부는 명년도 중학교 입학시험 방안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다. 1956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40개교를 무시험제를 도입하였다. 무시험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상관회귀선법을 적용하여 필답고사를 치르지 않고, 국민학교 성적과 면접, 신체검사만으로 입학자를 선정하게 되었다.[51]

1957년에는 전국적으로 무시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문교부는 각 시·도의 승인 아래 무시험전형과 학력고사 중 각 중학교가 학생 선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52] 무시험전형에서 평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국민학교의 성적, 즉 내신 성적이었다. 각 국민학교가 산출하는 내신 성적의 평가 비중이 높은 것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학교 교장이 자기 학교 학생을 되도록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내신서를 날조하는 경우도 있었다.[53]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입학시험 없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무시험제는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국민학교 정상화와 과열된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권장되었다.

문교부는 1958년부터 내신에 의한 무시험전형제, 학교별 필답고사제, 또는 시·도별 연합출제제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거나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54] 어떤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중학교 교장에게 달려있었다. 내신전형제는 학교에 따라 내신 성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학교가 선택한 전형 방법이었다.

무시험 내신전형제를 택하는 학교가 많아졌지만, 일류 중학교로 불렸던 학교들은 무시험 내신전형제가 아닌 유시험제를 채택하였다. 해당 학교들

---

50) 『朝鮮日報』,「兒童保健에異狀있다」, 1955.5.16.(2).
51) 『朝鮮日報』,「最小限40校程度」, 1956.1.21.(3).
52) 교육부, 『교육 50년사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237.
53) 『朝鮮日報』,「內申書에不正 中學校無試驗銓衡」, 1957.3.30.(2).
54) 교육부, 『교육 50년사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238.

은 학교별로 자체 필답고사를 실시하거나, 시교육위원회가 연합출제 문제를 활용하였다.[55]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더 많았으나, 여전히 일류 중학교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무시험 내신전형제를 택한 학교들 중에는 정원미달교가 나타나기도 하였다.[56] 입시위주의 국민학교 교육을 지양하고자 실시했던 중학교 무시험전형제는 오히려 정원미달교와 일류 중학교로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관리주체가 국가에서 각 중학교로 변화되는 시기였다.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 필답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중학교와 국민학교 내신 반영 비중을 높이려는 국민학교의 대립 속에서 중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각 중학교에게 일임되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중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자가 일류중학교로 편중되는 경향은 심화되었다. 문교부는 과열된 중학교 입시준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시험 전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교부가 무시험 전형제를 권장하더라도, 학생 선발 방법의 선택권은 여전히 중학교에게 있었고, 일류중학교들은 각 학교의 자체 필답고사 시행을 선호하였다. 일류중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여전히 필답고사를 준비해야 했기에 중학교 입시준비의 과열은 해결되지 않았다.

4) 제 3공화국 (1962-1968)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1961년 8월 12일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표하였다. 군사정부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전형 방법은 필답고사와 체능검사를 구분하며 실시하며 국가가 입시를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웠다.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62년 중학교 입시제도는 다시 국가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다.

---

55) 『東亞日報』, 「一流校는全部「試驗制」」, 1958.12.17.(2).
56) 『東亞日報』, 「24校나定員도未達」, 1958.2.8.(3).

군사정부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국가 공동출제는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선발의 전형 요소에는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이 포함되었다. 필답고사의 출제범위는 국민학교 6학년 전 교과였다. 신체검사는 체격 및 체질검사와 체능검사로 나눠서 시행되었는데, 체격 및 체질검사에서는 전염성 질환이나 수학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있는지 유무만 검사되었고, 체능검사는 달리기, 던지기, 뜀뛰기, 턱걸이가 평가되었다.[57] 1962년 국가고시제로 시행된 중학교 입시에서는 체능검사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전체 전형 점수에서 필답고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을 위해 기존의 지식 위주 필답고사 준비뿐 아니라 체력 단련도 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문교부는 1964년 각 시·도 단위에서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개정된 입시제도의 큰 특징은 필답고사가 국어, 산수로 축소된 것이다. 문교부는 수험 준비교육에서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답고사의 과목과 범위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시험 과목은 국어, 산수 두 과목만을 시험하며, 중학교 입학시험 출제범위는 국민학교 6학년 교과서로 국한하였다. 시험과목이 두 과목으로 줄어들자, 국민학교에서는 국어와 산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입시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은 학습하지 않고 국민학교에서 국어와 산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 국민교육의 비정상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국민학교의 수업이 국어와 산수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 과목을 전 과목으로 늘렸다. 문교부는 1965년 중학교 입학시험 역시 각 시·도 단위 공동출제로 하되, 시험은 6학년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도록 하였다. 입학 전형에서 1964년 8분의 1이었던 체능 검사의 비중은 40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다.[58]

1966년 문교부는 입학 전형 방안을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승인 기

57) 『東亞日報』, 「中·高等·大學校 入學者詮衡要綱案 全文」, 1961.7.16.(2).
58) 『京鄕新聞』, 「入試作戰 (3) 출제범위」, 1964.11.12.(4).

준에 의하여 각 중학교장이 결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59]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범위는 6학년 전 교과에서 출제되었으며, 반공과 도덕 교과가 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67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예년과 동일하게 6학년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하되, 교과서 내용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새로 추가되었다. 부교재에 의존하여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과외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교과서에서 표현을 바꾸지도 않고 동일하게 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별 출제에 따른 문제의 정오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도 도입되었다.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은 입시관리위원회가 문제은행으로 활용될 문제를 출제해 두고 각 중학교가 입시관리위원회가 출제한 문제 중 학교 신입생 선발에 활용할 문제를 골라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국민학교 학생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과열된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범위를 철저하게 교과서로 한정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부독본 공부를 줄이고자 하였다. 제3공화국의 입시제도가 개혁되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범위는 교과서였다. 1967년부터는 중학교 입학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글자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출제되었다. 문제은행식 출제방식과 교과서 기반의 시험 출제방식은 중학교 입학시험의 난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험의 난도가 낮아지면, 소수의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히는 것이 중요해진다. 일류중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시험이 출제되었음에도 일류중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과외 공부를 지속하였다. 중학교 입시 준비의 과열은 쉬운 시험의 도입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

59) 『京鄕新聞』, 「中學入試 6學年책에서」, 1965.5.1.(7).

Ⅲ.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과정

본 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계획되고 시행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고안된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무시험 진학 방법에 대한 논의 과정과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정당화한 논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문교부의 시행 계획 및 실제 실시 양상과 이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계획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대한 논의와 무산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을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1955년 국가연합고시제 대신 중학교 입시가 학교 단위의 관리제가 되면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1955년 7월 26일에 개최된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

>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내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는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에워싼 토의 가운데 다음 몇 가지의 의견이 공통되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입학방법의 시험이라도 존재하는 한 준비교육은 폐지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의 새로운 방법은 무시험 학구제를 실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다.[60]

60) 『京鄕新聞』,「無試驗制를主張」, 1955.7.28.(3).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한 과목과 출제 범위를 아무리 조정하여도 국민학교는 중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국민학교의 준비교육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진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중학교 이상의 각 학교의 입시는 선택의 자유제를 실시케 하라'는 특별 유시를 내렸기에 학교의 학생 선발은 전적으로 중학교에게 달려 있었다.[61]

문교부는 입시 준비교육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을 장려하였다. 1955년, 문교부는 각 시·도별로 남·녀 2개교 이상을 선정하여 무시험전형을 시행토록 하였다.[62] 문교부의 무시험전형 장려로 학생의 내신을 확인하여 시험 없이 무시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증가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면 일류교로 지원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억제되어 과열된 입시 상황이 냉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교부의 기대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일류중학교는 여전히 무시험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무시험으로 학생을 선발을 학교에서는 정원이 미달되는 이른바 '정원미달교' 현상이 나타났다.[63]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무시험전형의 공정성도 문제가 되었다. 학교의 자체 입학시험이 없는 무시험전형의 경우 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 내신 성적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무시험교의 정원 미달 문제, 내신 성적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군사정부는 1962년 중학교 입학시험을 국가 공동출제로 복원시켰다. 1950년대에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통해 중학교 입시 과열을 막고자 한

61) 교육부,『교육50년사』,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236
62) 교육부,『교육50년사』,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236
63) 『東亞日報』,「24校나定員도未達」, 1958.2.8.(3).

노력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과열된 중학교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대응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중학교 입학시험 자체를 없앤다면 경쟁이 사라질 것이며, 중학교 입시 준비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것이었다. 신문의 칼럼이나, 교육 잡지에서 현재의 과열된 입시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으로 언급되던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공식적인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1967년이었다.

1967년 11월 07일 서울 시내 국민학교 교장들은 대한교련에 모여 중학교 입시 방안을 토의하였다. 교장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 추첨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 과외공부를 없애고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69학년도부터 중학 입학자 전형을 국민학교 내신서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과 추첨제로 하자는 방안이 서울시 교육연구소와 일선 교육을 맡은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제기되었다.
>
> 6일 오후 2시 교육회관에서 회합한 서울시내 국민학교장 1백 50여명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의무교육 연한을 9개년으로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잠정적인 해결방안으로 ①중학 신입생의 전형방법을 무시험 추첨제로 하되 ②이 제도의 운영 관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및 교육위가 공동으로 맡고 ③추첨권은 국민학교 성적에 따라 교위가 중학교의 수용능력만큼 발급, 추첨권 소지자는 석차에 구애 없이 동등하게 추첨에 참여토록 하며 ④중학교는 전후기 구별 없이 단기제로 추첨권 소지자의 등록을 받아 입학여부를 추첨으로 결정 짓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 오는 16일의 정례교장회의에서 이를 확정, 문교부와 교위에 건의키로 했다.
>
> 또한 서울시 교육연구소는 69학년도부터 현행 입시제도를 전폐, 국민학교의 내신서와 체능검사만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전형토록 하는 입시제도 개정안을 마련, 곧 문교부에 제출키로 했다.[64]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방안을 결의한 다음 날 문홍주 문교부 장관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시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결의는 입시를 눈앞에 두고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중학교 입시 문제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되 6학년 교과서 범위 안에서 산수 문제까지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출제하도록 하는 문교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응하였다.[65] 문홍주 문교부 장관은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중학교 무시험이 결의되기 전인 10월 29일에도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문홍주 장관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9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어렵고, 추첨에 의한 선발 방식은 학생들에게 요행심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하였다. 중학교 입시를 위한 과외 공부 문제에 대한 문홍주 장관의 입장을 살펴보자.

「과외공부는 없앨 수 없읍니다. 장관인 내 막내도 과외공부를 하고 중학에 진학했읍니다.」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과외공부에 대해 우리나라 문교행정 총책임자 문홍주 장관은 시무룩하게 입을 열었다.

「중학 1학년인 아들의 과외공부 때문에 집사람이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입시제도를 뜯어고쳐야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라면서 아들 때문에 안달하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중략)

「과외를 없애는 길은 첫째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는 길, 둘째 제비뽑기, 세째 내신제에 의한 무시험 전형방법 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6년 의무교육도 제대로 못해나가는 실정인데 당장 9년까지 연장한다고 내세울 수도 없고, 둘째의 제비뽑기는 어린이들에게 요행심을 길러주는 셈이니 교육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요. 세째 내신제에 의한 중학교 무시험 입학도 여러가지 점에서 어렵습니다. 국민학교 3년간의 성

64) 『東亞日報』, 「入試中學 無試驗추첨制로」, 1967.11.7.(7).
65) 『東亞日報』, 「必要따라登錄證교부」, 1967.11.8.(3).

적을 참작한다면 부모들이 3년간 국민학교에 쫓아다니며 선생을 못살게 굴 것이고 그동안의 성적을 올리려고 더 심한 과외공부가 생겨날지도 모르고, 또 선생님들 가운데 매수되어 성적을 마구 올려놓는 일이 생기면 학교불신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66]

문교부는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지침을 1968년에도 고수하였다. 문교부는 1968년 3월 3일, 명년도 입시에서도 이전처럼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67] 특히 입학시험의 총점수에서 체능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종래 총점의 40분의 1이었던 체능의 배점을 30분의 1로 늘린 것이다. 문교부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지나친 과외공부를 근절하기 위해 체능 점수의 배점을 늘렸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입시지침이 발표되고 한 달 후 4월 26일, 대한교육연합회는 "육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중학교 입시제도를 무시험 전형제로 개혁하자는 안건을 청와대와 문교부에 건의하였다.[68] 안건의 내용은 현존 국민학교를 중학교구로 나누고, 구내에 있는 모든 지원 아동은 구내의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대한교육연합회가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를 건의한 다음 날 문교부는 바로 시행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69] 문교부는 중학교구제와 무시험 전형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대응하였다. 이어 "입시개선책은 70년도에나 강구할 문제라며 69학년도 입시는 기정 지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66) 『朝鮮日報』, 「課外공부 없애는덴 妙方이 없다는… 文敎部長官 文鴻柱씨」, 1967.10.29.(6).
67) 『朝鮮日報』, 「69년도 中-高入試 體能에 重點」, 1968.3.3.(7).
68) 『東亞日報』, 「中學校區 制新設토록」, 1968.4.26.(3).
69) 『京鄕新聞』, 「내년入試는 그대로」, 1968.4.27.(7).

2) 1968년 새 내각 구성 후 정책 전환

1968년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7개 부처의 장관들을 돌연 경질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70] 7개 부처 장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전격적인 인사에 각종 언론들은 '돌연' 경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갑작스러운 개혁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기강 확립과 정부 시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무, 재무, 농림, 법무, 문교, 교통, 체신 등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었는데, 문홍주 문교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권오병이었다. 법무무 장관에서 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오병은 문홍주 장관 이전에 문교부 장관직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권오병 장관이 처음 문교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남긴 행적을 살펴보자.

1965년 문교부 장관으로 부임한 권오병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군인의 학원 난입 사건에 대한 질문에 학원이 자초한 일이었다고 밝히며, 정치학생들과 교수들을 조속히 제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71] 취임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8.14. 한일 조약 비준 후 발생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데모에 대해 바로 무기휴업령을 내리고 주동 교수들을 처벌하고자 하였다.[72] 권오병은 사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며 8.14. 비준 반대운동에서 서명했던 교수들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지 않는 한 앞으로 학위수여 승인과 해외여행 추천 및 승진을 문교부에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73]

권오병 장관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학 교수와 학생들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권오병 장관이 8.14. 비준 반대운동 서명 교수들의 박사학위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부임한 지 두 달밖에

---

70) 『東亞日報』, 「七部長官을 돌연 경질」, 1968.5.21.(1).
71) 『京鄕新聞』, 「軍人亂入學園서自招 權文敎就任談 政治學生등은 除去」, 1964.8.28.(7).
72) 『東亞日報』, 「高大·延大에 無期休業令」, 1965.9.4.(1).
73) 『東亞日報』, 「署名敎授에대한拙劣한報復」, 1965.10.14.(2).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 본회의에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폐기되긴 하였지만, 가결과 부결의 표 차이는 겨우 5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74]

권오병 장관의 사학에 대한 강한 제재와 급진적인 업무추진 방식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나올 정도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권오병 장관에 대해 깊은 신임을 보였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교부 장관을 교체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75] 당시 권오병 장관의 업무추진 방식은 '불도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저돌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입시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하였다. 우선 1966년도 입시 방안에 대해 "교과서에서 한 글자도 다르게 출제하지 말라"는 출제 지침을 지시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당장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중학교 입학에 학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76] 권오병 장관은 한국의 중학교 입시 과열이 일본의 고등학교 입시 과열 양상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동경에서 일류교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1967년부터 공립고등학교에 학군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중학교 입시에 학군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77] 중학교 입시 과열 문제를 학군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권오병 장관의 뜻은 갑작스러운 개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66년 권오병 장관은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낸 법무부 민복기 장관을 대신하여 문교부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78] 1968년, 권오병 법무부 장관은 또다시 문교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문교부 장관으로 재임명된 후 권오병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74) 『京鄕新聞』, 「文敎解任案폐기」, 1965.11.20.(1).
75) 『朝鮮日報』, 「改閣說强力否認」, 1965.11.21.(1).
76) 『東亞日報』, 「入試새處方…과연實現될까」, 1966.9.1.(6).
77) 『京鄕新聞』, 「學校群制學校의格差를없애고入試地獄免케한다는」, 1966.9.3.(3).
78) 『東亞日報』, 「一部改閣을斷行」, 1966.9.26.(1).

1호는 함구령이었다. 권오병 장관은 문교부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절대 보장하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함구령을 어기는 경우 담당 직원뿐 아니라 과장 선까지 문책하겠다고 강하게 지시하였다.[79] 불도저 같은 추진 능력을 보였던 권오병 장관은 이전 임기 동안 언론에 대학교 정원 초과 현상을 알린 직원을 해임한 바 있었다. 권오병 장관의 지시사항 제1호 함구령에 문교부 직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피하게 되었다.

1968년 5월, 재취임하는 권오병 장관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내년부터 어린이들의 입시지옥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80] 권오병 장관은 문교부 직원들이 언론에 접촉하는 것을 막으면서 중학교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입시제도 개선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대책위원회에는 문교부 장학실장, 보통교육국장, 교육행정과장, 장학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입시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의 주도 아래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학군제를 중점으로 하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고안하였다.[81]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실시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정부의 논의 자리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것은 1968년 7월 11일이었다. 7월 11일 오전에 열린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회에서 중학교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입시 폐단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기된 것은 학군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였다. 정책 협의회에서는 80년도까지 의무교육 연한을 9년으로 늘리기 위한

79) 『東亞日報』, 「文敎部職員들에 함구令」, 1968.5.25.(7).
80) 『東亞日報』, 「69學年 無試驗진학 大統領지시 힘입어」, 1968.7.27.(6).
81) 『京鄕新聞』, 「爆彈宣言 이 있기까지」, 1968.7.17.(6).

준비작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6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진학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82] 권오병 장관은 학군제 실시를 위해 학계·정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장기교육제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연차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83]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협의회에서 중학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김이 새버렸다며 난색을 보였다.[84]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여당에서 선전에 급급한 나머지 무책임하게 발표함으로써 모처럼 계획해 보려던 정책이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권오병 장관은 부임 후 지시사항 제1호로 함구령을 내릴 정도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7월 11일 시행된 정책협의회에서 중학교 입시제도가 논의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권오병 장관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권오병 장관은 겉으로 불쾌한 내색을 보이면서도 정책을 빨리 확정·발표해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였다.[85] 권오병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회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총리실에서 총리에게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중학교 입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권오병 장관의 설명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좋아한다면 소신껏 하라고 찬의를 보였고,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발표를 결심하였다.

1968년 7월 15일 아침 8시 권오병 장관은 긴급정당협의회를 소집하여 개혁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10시 문교부 장관실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날짜를 7월 15일로 선정한 것에 대해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듯이 7월 15일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킨 날로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86]

---

82) 『朝鮮日報』, 「中學入試 3年內폐지」, 1968.7.12.(1).
83) 『京鄕新聞』, 「學群制案을검토」, 1968.7.11.(1).
84) 『東亞日報』, 「中入改善案報道로 김새 權文敎 與人士」, 1968.7.13.(6).
85) 『東亞日報』, 「「고질20年」고친「陣痛두달」」, 1968.7.16.(7).

권오병 장관은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극단적인 학교차를 해소하며,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 부담 경감시키고, 아동이 건전한 성장, 발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국의 모든 중학교 입학시험을 없애고 중학교 입시 과열의 원인인 세칭 일류중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87] 1969년부터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시험 대신 추첨제를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현행 행정구역과 동 구역 내 국민학교 수를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치하고 학교군 안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를 지망하면 추첨을 통해 진학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시험제 입학을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의 큰 혁명이라고 자평하였다.[88]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준비

언론에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문교부의 중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밝힌 권오병 장관은 1968년 8월 6일 시행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을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서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와 계획, 문교부가 바라는 정책의 목표가 드러나 있다. 국무회의 기록에 남아있는 문교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 목적을 살펴보자. 국무회의에 보고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보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래 국민학교 교육이 중학교 입시준비에 치중되었던 관계로 아동들은 과외공부에 시달려 신체의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의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의 부재상태를 빚어냈고 인격형성과 기초교육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86) 『京鄕新聞』, 「爆彈宣言 이 있기까지」, 1968.7.17.(6).
87) 『京鄕新聞』, 「中學入試制폐지 내년부터學群制」, 1968.7.15.(1).
88) 『東亞日報』, 「中學入試제도廢止」, 1968.7.15.(1).

무시험 진학제도를 채택. 1969학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1970학년도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시에 1971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코자 그 경위를 보고합니다.[89]

문교부는 국무회의 보고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중학교 입시제도에서는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민학교 교육이 중학교 입시 준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 발육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결함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현행 중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입시 준비교육이 치열한 것은 학생들이 일류 중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 과외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해마다 과외 공부 학생은 증가하고 저학년도 과외 공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일류중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았다. 교과과정에서 각 과목에 시간이 배당되어 있지만 형식화 되어있고 중학교 입시를 위한 국어, 산수, 사생, 자연에 편중되어 암기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도의 정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격 형성이 결여된다고 보았다.[90] 이러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문교부는 국무회의 보고에서 행정구역과 현존 국민학교를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학교군 내에 있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추첨에 의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학교군은 구·시·군을 단위로 지방에 따라 세분하며, 일류중학교는 3년에 걸쳐 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학교 중 일류

89) 제59회 국무회의록,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407.
90) 59회 국무회의록,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408-411.

중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 용산중학교, 중앙중학교, 경동중학교, 보성중학교였다. 여학교 중 일류 중학교로 선정된 것은 경기여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수도여자중학교, 이화여자중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진명여자중학교였다,

일류 중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와 경기여자중학교, 이화여자중학교는 1969학년도부터 1학년 학생 모집을 폐지하고 그 정원과 학급을 고등학교로 개편토록 하였다. 용산중학교, 경동중학교, 서울사대부중학교와 수도여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는 1969학년도부터 1학년 학급 수의 1/2만 모집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학급으로 개편하고 1970학년도에는 모든 정원이 완전히 고등학교로 개편하고자 계획하였다. 중앙중학교, 보성중학교와 숙명여자중학교, 진명여자중학교는 1969학년도에 1/3, 1970년과 1971학년도에 각각 1/3을 고등학교 학급으로 개편하고자 계획하였다. 1971년이 되면 일류 중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는 모두 동일계 고등학교 학급으로 개편하고 일류중학교는 폐지하고자 하였다.[91]

각 학교군에는 입학 추첨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학부형 대표, 중·고등학교장 대표, 국민학교장 대표, 신망 있고 유능한 사회 인사 중 7인을 위촉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9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군내 진학예정자를 재조사하고 남녀 군별, 중학교별 수용능력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권 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내년도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자 수는 내년도 졸업생·재수생·검정고시 합격자를 모두 합쳐 10만 4천명이라고 밝히고 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70명으로 전제하더라도 남자

91) 제59회 국무회의록,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417-418.
92) 제59회 국무회의록,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419.

제 1군에서 30학급 4군에 50학급이 부족 되며 여자 제 1군에서 67학급이 3군에서 57학급, 4군에서 78학급 등 도합 282학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내년 신학기까지 서울 시내에 공립은 10개교(100학급 남 3:여 7)를 사립 6개교(60학급)를 신설키로 했는데 학급증설도 남자 36개 학급 여자 3개 학급 등 도합 39개 학급을 증설키로 하였다.[93]

문교부는 중학교 수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70명으로 상정했음에도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수용하기에는 학급이 부족하였다. 문교부가 조사한 1969년 중학교 지원자는 10만 4천명이었는데, 당시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7만 4천명이었다.[94] 이에 문교부는 중학교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중학교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교부는 서울 시내 교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원양성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정 학군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도 경계하였다. 시험이 아닌 학군에 의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기에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전학을 금지한다는 세부 조항도 마련하였다.

문교부가 국무회의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와 실시방안을 보고하고 한 달 후 196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밝히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연설을 하였다. 예산안에 대한 연설 중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지금까지 제2세 국민의 교육에 막심한 방해를 가져왔고 사회적 병폐를 조성하여 왔던 중학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93) 『京鄕新聞』, 「中學校 16校증설」, 1968.7.19.(1).
94) 제59회 국무회의록,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건', 422.

무시험진학제도를 확립하고자 중학교의 대폭확충과 학교분포의 조정, 질적 수준의 평준화 등을 비롯한 필요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95]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의 중학교 입학시험을 중학교 입시지옥이라고 평가하였다. 입시지옥처럼 과열된 중학교 입시가 국민 교육에 막심한 방해를 가져왔고, 사회적 병폐를 조성해 왔다고 보았다. 교육열로 과열된 중학교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향후 의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중학교 대폭 확충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에 협조해 주기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1968년 11월 1일 제67회 국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와 11월 2일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제67회 국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다루고자 하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설명하는 권오병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자.

첫째 중학교입학무시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성장기의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 그 발육을 촉진하고 정규의 교육과정에 따라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여 건전한 국민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제반사회적 폐단을 일소시키고자 중학교무시험제도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96]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정책 입안 설명에 문교공보위원들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시행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육인수 문교공보위원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는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95) 『국회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1차 국회 본회의, 1968.9.3.
96) 『국회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 1968.11.1.

학부형들이 아동의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학교 입학시험의 치열한 경쟁으로 국민학교가 입시 준비교육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개혁하는 데 찬성한다고 발언하였다. 다만, 현재의 자원과 현재의 국위로 봐서 6년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며 우선 중학교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거기에서 징수된 공납금을 가지고 학교를 증설하여 차차 의무교육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첨언하였다.[97]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와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제도, 방송통신대학교 설치,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세 가지였다.[98] 그중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문교공보위원들의 이견 없이 동의하되 법률안 입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되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논의 결과 교육법 제103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의 조항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로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103조의 2 '중학교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안이 신설되었다. 제103조의 2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6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추가되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8년 11월 12일 제7대 국회 제67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99] 교육법 제103조 2의 규정 개정으로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

97) 『국회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 1968.11.1.
98) 『국회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 1968.11.2.
99) 『국회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21차 국회 본회의, 1968.11.12.

3)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이듬해 1969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6개 예치 은행을 지정하고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학 진학 공납금을 납금한 학생에게 중학교에 응할 자격을 부여하였다.[100] 추첨의 기본 원칙은 학생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추첨 당일 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추첨 관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계존속이 대리추첨 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추첨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 ①추첨 당일(남5일, 여 6일) 오전 9시까지 응시생들은 학교장의 인솔로 추첨 장소에 도착한다. ②대기실에서 사진과 대조한 후 추첨 표를 왼편 가슴에 달고 학교 추첨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③미리 학교별로 정해진 추첨 기를 오른쪽으로 두번 돌리다가 왼편으로 한번 돌리면 중학교 기호가 적힌 추첨 알이 나온다. ④기록소에서 추첨 알 번호를 기입한다. ⑤추첨이 끝난 후 배정표는 어린이들이 보관하고 해동 중학기호는 7일 오후 2시 발표한다. ⑥추첨 장소에는 추첨관리위원, 출신학교장, 학부형 대표 2명이 참관하며 국민학교 담임선생이 학생들을 인솔한다.[101]

추첨을 통해 배정된 중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추첨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진학을 포기하는 국민학교 학생에게는 다음 해에 다시 추첨권을 주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중학교 추첨을 위해 예치했던 공납금도 반환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았다.[102] 권 장관은 학부모끼

---

100) 『每日經濟』, 「6個예치銀行지정 中學進學公納金」, 1969.1.7.(7).
101) 『朝鮮日報』, 「추첨 절차를 확정」, 1969.1.12.(7).
102) 『東亞日報』, 「配定校불만 進學포기者엔 來年추첨權안줘」, 1969.2.7.(3).

리 합의해서 당첨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교부는 학급 수를 증설하고자 하였다. 90%의 취학률을 달성한 국민학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중학교의 수용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바로 시행되게 되는 서울뿐 아니라 1971년 전국적 시행을 대비하여 학급을 늘리고 신설 학교를 세우고자 하였다. 1970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전국 7개 도시에서 시행하기 위해 7개 도시에 공립 22개교를 신축하고, 기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급 수를 증설하고자 하였다. 당초 계획되었던 1970년과 1971년 이후에도 문교부는 전국적으로 학급 증설과 학교 신설을 통해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수용하기 위한 중학교의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갑작스러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으로 중학교와 학급뿐 아니라 교원 부족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중학교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증설되는 학급과 학교에 발령될 교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중등교원 부족으로 인한 문교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아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의 중등학교 교원 수요가 예년의 갑절인 1만명 이상으로 급증, 문교부는 그 공급 확보책에 부심하고 있다.
>
> 17일 문교부의 71학년도 중등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채용해야 할 교원 수는 학생진학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증가 7020명, 퇴직교원 보충을 위한 4507명 등 모두 11534명으로 현 교원 총수의 20%에 해당하고 있다.
>
> 이에 비해 내년에 채용할 수 있는 교원은 사대출신 1814명, 일반대학의 교직과 이수생 2468명, 실과대 졸업생 206명 등 겨우 4488명에 불과, 나머지 3분의 2에 가까운 7046명은 임시교원 양성소 검정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103]

---

103) 『東亞日報』, 「文敎部부심 中等敎員不足七千여명」, 1970.7.17.(7).

위 기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학생 진학자가 늘어났지만, 학급이 증설되는 규모를 기존 교원 양성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족한 교원은 임시교원 양성소를 통해 충당하였는데, 임시교원 양성소 출신 교사의 질 문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중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부족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소를 통한 교사 선발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1971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중학교 학급과 교원의 부족이 1971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국민학교 학생들을 자연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문교부는 부족한 중학교를 증설하고, 새로운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중학교의 평준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중학교에 따른 교사의 역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문교부와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각 중학교에서 능력이 부족한 '무능교사'를 색출하였다.

> 문교부와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8일 전 장학사를 동원, 서울 시내 각 중학교의 무능력교사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박 문교부 차관은 각 학교에 파견된 장학사가 각 중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이력서·경력·근무평가서 등을 조사하여 무능력교사를 가려낸다고 말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라 각 중학교의 교원 평준화를 위한 이 조사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는 교사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104]

문교부는 중학교에 따른 학교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원을 평준화 하고자 하였다. 문교부의 무능교사 색출에 대해 사립 중학교 교장들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원을 장학사들의 기준에 따라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교육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반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교부는 2백여명의 무능교사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무능교사는 당초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겨울방학을 이용해 약 80시간의 재교육을 하여 구제하기로

104) 『京鄕新聞』, 「文敎部 無能敎師조사」, 1968.9.18.(7).

최종 결정되었다.[105]

학교차를 줄이고 교원의 질을 평준화하고자 중학교원을 대규모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의 학교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들의 80%를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교사들의 평준화를 위해 우수교사를 변두리 및 신설 학교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교부의 교원 이동 계획을 다룬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 무시험 입학에 따른 중학교 평준화 작업의 하나로 문교부는 서울시내 중학교사의 80%를 오는 20일까지 이동키로 하고 10일 이를 서울시교위에 지시했다. 그러나 문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많은 중학교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세칭 일류중학과 변두리 또는 신설 중학교 간의 교사교체는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 서울시교위는 10일 평준화 계획에 따라 경기, 서울, 경기여중 등 중학이 폐쇄된 학교 등 공립중학교사 24명을 변두리 중학교로 이동발령했는데 이날 발령받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발령교에 갈 것을 꺼리며 학관에라도 가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106]

일류 중학교와 변두리 학교의 교사 차이를 약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일류중학교 선호 의식을 약화시키려는 문교부는 교사와 학교의 반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1969년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교사 중 149명이 전보 발령을 받았다. 당초 계획했던 80%의 교원 이동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한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이 이동되었다.

일류 중학교를 폐지하겠다는 문교부의 정책도 실시되었다. 일류 중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와 경기여자중학교, 이화여자중학교는 196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모집 정원을 동일계 고등학교로 이월하였다. 마지막 입학자인 1968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1971년 겨울 졸업식을 끝으로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복중

105) 『朝鮮日報』, 「無能 中學교사救濟」, 1968.12.5.(8).
106) 『朝鮮日報』, 「敎師들……변두리 轉補에 反撥 「中學平準化」 첫難關」, 1969.2.11.(7).

학교와 경기여자중학교, 이화여자중학교는 학교 문을 닫게 되었다. 1972년에는 서울의 경동중학교와 수도여자중학교를 비롯해 인천중학교, 전주북중학교, 전주여자중학교, 광주서중학교, 광주동중학교, 전남여자중학교, 광주중학교 등 14개 학교가 폐교되었다.[107]

3.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반응

1) 언론의 보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 입시경쟁 과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교부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언론에서는 1968년 7월 15일 권오병 장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7월 16일 동아일보에는 3면에 『입시지옥서 풀린 동심』이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집중 조명하였다. 같은 날 7면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과정이 『고질 20년 고친 진통 두 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같은 날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을 살펴보자.

>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며 혁신적인 단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학 입학시험이 있는 탓으로 그간 해당 아동들은 먹을 것도 제때에 먹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학교 아동들의 체위가 형편없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
> 중학입시에 매달리는 일은 비단 6학년 아동들만이 아니다. 학부형들은 일류중학 아니면 좀 더 나은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과외공부를 시키는 등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해 부형들이 자기 볼 일을 차분히 보지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

107) 『京鄕新聞』, 「숱한後遺症안고正常軌道에3년째맞은中學무시험進學」, 1971.2.10.(6).

로도 고달픈 생활을 억지로 참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생각할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는 천번 만번 잘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108]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갑작스러운 발표였음에도 학생들을 입시 준비에서 해방시켰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언론에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된 아이들로, 지난 20년의 중학교 입학 경쟁은 고질적인 문제로 묘사되었다. 기사의 제목뿐 아니라 기사 내용에서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길었던 중학교 입시문제를 해결한 제도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사상 일종의 쿠테타', '교육혁명'으로 서술되었고, 교육혁명을 결정한 문교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의 용기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109]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기존의 시험을 통한 학생 선발방식을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었기에 세부적인 시행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난점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연재되었다. 동아일보는 ①추첨 방법, ②정원과 지원조정, ③사학의 앞날, ④교사의 처우, ⑤학교 평준화, ⑥개혁의 후유라는 제목으로 6개의 특집기사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선일보는 10회에 걸쳐 ①고교 진학 ②추첨제 ③중학교 평준화 ④학군제 ⑤사립학교 ⑥수용계획 ⑦ 초·중 교사 ⑧과외 공부 ⑨교육 효과 ⑩불신증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2)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중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여 과외 공부를 하던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갑

108) 『京鄕新聞』,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찬성한다」, 1968.7.16.(2).
109) 『東亞日報』, 「이렇게 생각한다」, 1968.7.16.(3).

작스러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에 당황하면서도 학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된 다음 날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을 보여주는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 동심은 마침내 입시지옥에서 해방되었다. 「고생보따리」라는 큰 책가방을 질질 끌던 밤거리의 과외수업 어린이들은 이제 명랑하게 뛰 놀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15일 중학입시제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교통사고, 자살 등 과외 수업에서 빚어지는 각가지 부작용에서 해방될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느닷없는 발표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모두 환영했다. 어떤 학부형은 『집에선 어린이 건강만 걱정하면 되겠다』면서 기뻐했고, 어떤 어머니는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했다.[110]

위 기사에서 학부형들은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학부형이 기뻐하였다. 입학시험의 부담이 사라진 국민학교 학생들도 입시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된 7월 15일 전후하여 서울시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일기를 담은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 ◆ 14일(일요일)
>
> 어머니께서 흔드시는 바람에 깨니 5시가 좀 지났다. 수돗가에서 냉수로 머리를 흠뻑 적시니 한결 정신이 든다. 어제 못다한 수련장의 산수 문제를 풀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과외공부만 하면 된다. 어젯밤 늦도록 공부를 안한 탓인지 한결 몸이 가볍다. 어머니께서 손수 싸주신 도시락을 갖고 과외공부 집으로 갔다.
>
> 과외 선생님은 "일요일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평소보다도 2시간이나 더 과외공부를 했다. 어머니께서 우산을 들고 찾아오셨다. 어머니와 나란히 우산을 받쳐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약방에 들

110) 『朝鮮日報』, 「童心…날개를 펴다」, 1968.7.16.(7).

러 박카스 한 병을 마셨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만을 믿고 사는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 15일(월요일)

오전 학교 공부는 졸음도 안오고 선생님 말씀이 머리에 잘 들어왔다. 네째 시간의 산수 시험은 신나게 백점이다. 점심시간에 새 소식이 들려와 순식간에 교실이 떠들썩해졌다. “입학시험이 추첨제로 됐다”는 선생님 말씀이었다. 학우들은 교실이 떠나가라고 환호성을 쳤다. 웬일인지 가슴이 떨린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과외공부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집으로 갔다. “며칠 안에 과외도 중단해야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의 과외공부는 선생님도 일손이 잡히지 않는지 기운이 없어보였다. 이제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16일(화요일)

어젯밤은 실컷 잠을 잤다. 마음이 흥분한 탓인지 책가방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학교에 오니 학우들은 제각기 떠들며 법석이다. 평소 같으면 야단을 치시던 선생님도 오늘은 말씀이 없으셨다. 쉬는 시간에 “과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대개가 다 “안 할거야”하고 대답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는 “올 여름방학에는 시골 외가에 가서 실컷 놀아라”고 큰 선물을 주셨다.

(서울 불광국민교 6학년 2반 김형철)[111]

1968년 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불광국민학교 김형철 군의 일기는 7월 15일을 기점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전까지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국민학교 학생들은 집안에서 본인에게 거는 기대를 감당

111) 『京鄕新聞』,「과외공부에 시달린 국민교생의 일기 “내일부터 또 지겨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 1968.7.17.(8).

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었다. 7월 15일, 문교부의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로 내년부터 시험 성적이 아닌 추첨에 의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학생들은 중학교 입시를 위한 과외를 그만두었고, 방학에도 놀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고 국민학교 학생들은 과외 공부를 하는 대신 거리로 나가서 자유롭게 놀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후 첫 공휴일이었던 7월 17일 학생들은 입학시험 공부 대신 거리로, 물가로 나가서 놀 수 있었다. 당시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가는 학업 부담 없는 국민 학생들로 북적였다.[112] 오랜 시간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국민학교 학생들은 입시 부담을 떨치고 서울 시내 극장가와 만화 가게에서 자유로운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113]

국민학교 교실에서는 갑작스러운 중학교 입학시험의 폐지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추첨을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에 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좋은 중학교에 갈 희망도 사라지고, 운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약화시켰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자습시간을 갖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전보다 결석이나 지각하는 경우도 늘어났다.[114]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나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국민학교 교사들은 우려하였지만, 학생들은 중학교 추첨 배정 전까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국민학교의 반응

112) 『朝鮮日報』, 「「童心」‥‥거리로,물가로」, 1968.7.18.(7).
113) 『每日經濟』, 「壁은무너졌지만 入試「해방」이 몰고온 餘波」, 1968.8.2.(2).
114) 『朝鮮日報』, 「卒業班 國民學校 어떻게 달라졌나 ① 고민하는『入試解放』」, 1968.10.24.(7).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발표는 국민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에서는 과외 공부를 금지하였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전까지 국민학교 교사들은 음성 과외 수업으로 봉급 외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 국민학교 교사들의 과외 수익은 봉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공·사립 교사의 월봉은 1만 2천원에서 2만원대였지만, 일부 국민학교 교사들은 과외 수익으로 월수입 10만원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사라진다는 문교부의 발표에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담임교사에게 과외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은 국민학교 교사들의 과외 수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민학교 교사의 수입 중 과외의 비중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성 수입이 줄어든 국민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학교에 붙잡아 두어야 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115] 국민학교 교사들은 과외 공부로 인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입시 부담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의 반응을 담은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자.

> 6학년 담임 3~4년이면 몸 망치기 십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몸은 고달팠다. 아침 8시 출근에 하오 5시 퇴근, 밤 11시까지 과외수업을 하고 나면 밤 12시가 넘도록 학과 지도안을 꾸며야 하는 생활. 심한 경우 새벽과외까지 맡은 선생들은 한낮의 휴식시간이면 졸기가 보통이다. 그래서 이들은 몸에 좋다는 보약을 모조리 구해먹는 등 몸을 아꼈다. 사립인 D 국민학교 6학년 김 모 선생의 캐비닛에는 언제나 인삼 녹용 등 각종 보약과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어 하급반 담임들이 점심때만 되면 곧잘 습격을 가기도 했다. 이제는 어린이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면 건강도 제물에 회복될 것 같다고.
>
> "학생들 못지않게 선생들도 해방됐습니다" E 국민교 차 선생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표정이다. "이제는 입시준비교육을 반대해 온 교장 선생님과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유독 사립학교 가운데 입시

115) 『朝鮮日報』, 「"失職할家庭敎師가 딱해"」, 1968.7.16.(2).

교육을 반대해온 이 학교 교장과 이를 요구하는 학부형들 틈에서 선생들만 혼이 났다는 것. Y 국민학교 김 모 선생은 한때 과외수업을 단속한다고 경찰이 학생들 뒤를 밟아 따라오는 등 학생들 앞에서 못 보일 꼴을 보여 왔다고 지난 일을 말하며 이제는 오히려 교단에 서기가 떳떳하다고 가슴을 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부를 다시 꾸려야 할 일이 어쩔 수 없다고.116)

국민학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류 중학교 지망 열기와 교장 선생님의 진학률 향상 압박 속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밤까지 이어지는 과외 수업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고달픈 것이었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입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봉급 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시행되었기에 국민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이후 국민학교에 노는 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학교 배정 결과가 일찍 발표되면 노는 풍조로 인해 국민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 서울시 공-사립 국민학교 교장회는 중학교 입학 추첨 시기를 국민학교 졸업 뒤인 2월에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117) 문교부는 추첨 시기를 2월로 확정하였지만, 학생들의 노는 풍조를 막을 수 없었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이후 학생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국민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118)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나 가정에서 자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도 공부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공부하지 않아도 추첨만 잘하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116) 『京鄕新聞』, 「中學추첨제 餘波 (1)」, 1968.7.22.(7).
117) 『朝鮮日報』, 「"추첨은 國民校졸업뒤에"」, 1968.7.21.(7)
118) 『京鄕新聞』, 「노는風潮」, 1968.9.6.(3)

국민학교에서 노는 풍조가 유행하고, 학습태도가 해이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자 문교부는 국민학교에 장학지침을 시달하였다.[119] 주지주의 교육 대신 예체능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실험실습에 충실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이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좋은 책읽기 지도를 권장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다. 문교부가 장학지침을 세우며 국민학교 교육 분위기를 개선해보려고 하였지만, 기존의 입시 준비에서 해방된 학생들의 노는 풍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노는 풍조 속에서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사학의 반응

7월 15일 권오병 장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후 7월 18일 서울 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사학회관에서 교장회의를 가졌다. 교장회의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 진학제도 시행과 경기중학교 외 5개 중학교 폐쇄에 따른 고등학교 학급 증설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교장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문교부의 중학교 입시지옥을 해소키겠다는 목표와 달리 무시험 진학제도는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120] 사립학교 교장들은 무시험 진학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사립학교의 반발에도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9월까지 사립중학교 교원의 질을 점검하겠다고 공표하였다.[121] 사립학교 교원 중 자격이 없는 무자격교사와 비전공과목교사를 정리하고, 유자격교원도 재교육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문교부는 사립학교의 평준화는 점검하겠지만, 중학교 평준화를 위해 사

119) 『東亞日報』, 「奬學指針시달 無試驗制로學習태도풀려」, 1968.9.9.(3)
120) 『朝鮮日報』, 「서울시내 私立中校長들 入試개혁에反撥」, 1968.7.19.(3)
121) 『朝鮮日報』, 「中學平準化 1段階조처」, 1968.7.19.(3)

립학교들의 공납금을 인하할 수도 없고, 시설이 미비한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사립중학교에서 시설을 확충하지 않거나 운영을 부실하게 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국가에서 인수받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2]

문교부는 국·공·사립 중학교장 회의를 열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같은 경우 학교를 분리하고 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장을 독립시킬 것을 지시하였다.[123] 문교부는 중학교 교원 평준화를 목표로 사립 중학교 교사들도 공개시험을 치러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124] 국가의 사립학교 교원 배정은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침해하는 것이었지만,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평준화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문교부는 1968년 9월 서울 사립중학교 시설·설비·교원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개 학교가 평준화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밝히고, 1969년에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125] 19개 중학교는 입학자 배정이 중지되지는 않았지만, 11월 말까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다. 문교부가 사립학교의 입학자 배정에 간섭하자 서울 시내 사립중학교 교장회는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교장들은 문교부의 5개 사립학교 입학생 배정 중지, 중고교장 분리 및 무능력 교사 정리 조치가 사학을 무시한 지나친 관권 발동이라고 반발하였고, 사학에 대한 문교부의 무리한 행정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126] 사립학교 교장들은 문교부의 가혹한 행정조치로 사학이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문교부가 사학에 대해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뿐더러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억압만 하고 있다고 문교부의 조치를 비판하였다. 다음날 사립중학교장회는 이사회를 열고 다음 추진방안을 결의하여 문교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122) 『京鄕新聞』, 「71年까지中學平準化 이룩」, 1968.7.19.(3)
123) 『東亞日報』, 「"中高校獨立원칙"」, 1968.7.26.(3).
124) 『東亞日報』, 「모든中學 敎師採用에國家考試」, 1968.9.5.(7).
125) 『每日經濟』, 「入學者配定中止 기준미달중학교」, 1968.9.10.(7).
126) 『東亞日報』, 「"私學무시한官權發動"」, 1968.9.11.(3).

① 문교부의 획일적인 중·고등학교장 분리 방침은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각 학교법인에 일임할 것
② 문교부가 11월 말까지 시설 평준화를 끝내도록 기한부로 지시한 것은 현 사학 실정으로는 곤란하므로 각 학교에 맡겨줄 것
③ 5개교에 대한 입학생 배정 중지와 19개교에 대한 조건부 시설보완 지시는 오히려 문교부가 학교차를 조장한 결과가 됐으며 이러한 비교육적 조처를 취하게 된 경위를 밝힐 것
④ 일류중학교 폐쇄에 따른 일류고교의 학급증설은 다른 학교에 미치는 혼란이 크므로 이를 재고할 것
⑤ 무능력교원정리 지시는 교원 신분 보장에 어긋나므로 철회할 것
⑥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결의했다.[127]

사립학교는 문교부의 행정조치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가혹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하였으나, 문교부와 서울시는 사립 중학교 통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였다. 문교부가 사립학교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부정함을 지적하였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며 사립학교를 압박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발표 단계부터 사학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문교부는 일류중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열로 인해 과열된 입시경쟁과 입시를 위한 국민학교의 준비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교원과 시설이 평준화였다. 문교부는 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교원과 시설이 평준화될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고, 사립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원과 시설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27) 『東亞日報』, 「"私學간섭是正을" 私立中校長들要路에건의」, 1968.9.12.(8).

Ⅳ.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교육적 영향

본 장에서는 Ⅱ·Ⅲ장에서 검토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배경과 도입 과정을 검토하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 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보이는 제도의 특징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도입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한국 중등교육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정의 특징

1) 권위주의적 정책 도입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국가가 모든 중학교의 선발 방법을 추첨제로 바꿔버린 제도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추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다. 더 나아가 일류교 지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중학교를 필두로 하는 일류중학교들을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한 정책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 중학교를 없애고, 사회의 학생 선발 방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부의 고안 아래 급진적으로 발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시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문교부 장관을 교체하였고, 새로 부임한 권오병 장관은 문교부 취임 제1 지시사항으로 “함구령”을 내렸다. 중학교 무시험 진

학제도는 권오병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세상에 발표되었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며 별도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주도하여 정책 실시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7월 15일 정책이 발표되기 전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김이 샜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권오병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계획된 제도가 아니라 문교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정책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해당 정책이 파격적인 학생 선발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충분한 사전 논의 대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문교부 장관의 구상만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다.

비밀리에 준비했다는 권오병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을 고안할 때 공청회가 진행되거나,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내 학교장들은 권오병 장관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야 문교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시내 학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고,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계획되었다. 권오병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책 보고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좋아한다면 장관 소신껏 하시오”라고 찬의를 표함으로써 정책 시행이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68년 7월 15일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정책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문교부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시설과 교원의 차이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원 평준화와 시설 평준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 평준화를 위해 문교부는 부실교사와 무자격교사, 무능교사를 적발하여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평준화를 위해서는

학교시설이 미비한 학교의 경우 학생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능교사의 해고와 시설 미비학교의 학생 배정 중지 등의 정책은 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내세운 목표는 교육열로 인해 과열된 입시경쟁의 해결,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 일류교 지향성 폐지 등과 같이 교육적인 것이었지만, 그 제도의 입안과 시행 과정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선발권이 박탈된 중학교는 문교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문교부는 교육열로 인해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입시 준비교육이 되어버린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의무교육제 확대를 위한 준비하겠다는 논리 아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2) 수익자 부담 원칙 정책 추진

1967년과 1968년에 대한교련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안을 제기했을 때 문교부는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교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9년으로 늘리기 위해 1968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난 1970년이 되어서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어렵다는 문교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약 3개월이었다. 문교부 장관이 교체되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논의된 시간은 약 2개월이었다. 문교부의 철저한 보안 지침 속에 권오병 장관을 필두로 한 소수의 협의회에서 정책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발표 전까지 문교부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위한 기반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된 것이다.

전국 중학교 시설현황이 조사되지 않았고, 학생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었다. 문교부가 최초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예상한 중학교 진학 희망자는 약 8만명이었다. 5개의 일류중학교를 폐교하더라도 한 학급당 수용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면 95%의 진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는 10만 4천 7백명으로 문교부의 예상보다 약 2만명이 초과되었다. 한 학급당 수용 인원을 70명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200학급 이상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교부에서는 중학교 증설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였고, 학교 시설도 부족하지만, 일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이 9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등교육비 예산을 7억으로 늘려서 학급 증설과 시설 평준화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문교부 장관이 수익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공표한 날 최복현 서울시 교육감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의 시행으로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시설비와 증설비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형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8] 최복현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매년 늘어나는 국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중학교의 학급 수가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증설 비용을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자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1968년 9월에도 다시 강조되었다. 최복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이 의무교육의 확대라고 착각하고, 학부모들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학생 수에 비해 교실 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진학 희망자를 조정하

128) 『京鄕新聞』, 「中學校增設·施設費등모두學父兄부담」, 1968.7.19.(3).

기 위해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진학하지 않도록 진학지도 할 것을 각 국민학교장에게 전달하였다.[129] 진학지도를 통해 경제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만들라는 지침이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실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려는 조치였다. 진학지도를 통해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줄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달성되지 못하고 이듬해부터 중학교 진학 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시행된 서울의 공립중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업료가 65% 인상되었다.[130] 1년에 6,840원이던 수업료는 11,280원으로 인상되었다. 1970년도부터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는 부산과 대구 등 6개 대도시와 71년도부터 시행되는 나머지 지역도 각 실시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수업료 인상 단행이 결정되었다. 인상된 공립중학교의 수업료는 기존 사립 중학교의 수업료에 맞먹는 것이었으며, 문교부는 인상된 수업료를 중학교 평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평준화를 위해 인상된 것은 수업료뿐만이 아니었다. 평준화를 위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명목 아래 중학교 입학금과 공납금 모두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평균 25%가량 상승하였다.[131] 학부모들이 각 중학교의 시설 및 교육의 질적 차이를 줄이겠다는 문교부의 평준화 논리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비용을 수익자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8년에서 1971년까지 25%가 넘는 공납금 인상률은 당시 물가상승률이 10%였던 것에 비해 인상 폭이 더 컸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13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정책이 발표되기 전 미비한 사항이었던 중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교육의 질적 평준화 문제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까

129) 『朝鮮日報』, 「"經濟力없으면 中學 進學못해"」, 1968.9.24.(7).
130) 『朝鮮日報』, 「公立中수업료 65%올려」, 1968.12.28.(3).
131) 『京鄕新聞』, 「學父母부담 얼마나 무거워지나」, 1970.9.5.(2).
132) 『京鄕新聞』, 「物價高 한술 더뜬 公納金인상」, 1971.8.27.(6).

지 중학교 공납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때 문교부는 의무교육 9개년 계획 확대와 평준화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중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함에도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추진할 힘이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사전 준비 부족을 가릴 수 있었던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사학에 대한 통제

문교부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면서 1969년부터 모든 사립중학교에서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제도가 발표된 후, 중학교 입학시험을 없애고 추첨 결과에 따라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중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조치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학재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학교의 교육 이념에 따른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학의 자주성이 무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고 3일 후에 열린 서울 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문교부가 중학교 입시지옥을 해소키겠다는 목표로 시행하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사립학교 교장들은 무시험 진학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교부에 제기한 사립학교의 반발은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교부는 국·공립 학교에 대한 원조를 계획하는 동시에 사립 중학교는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패가 교원과 시설 평준화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의 평준화에 강하게 개입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을 위해 9월까지 사립중학교 교원의 질을 점검하고 사립학교 교원 중 자격이 없는 무자격교사와 비전공과목교사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리되지 않은 사

립학교의 유자격교원도 교원 평준화를 위해 재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교부는 사립학교의 평준화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사립학교들의 공납금을 인하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권오병 장관은 사립중학교에서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운영을 부실하게 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국가에서 인수받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하게 사립학교를 압박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을 위한 6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문교부의 사립학교 통제 조치는 계속되었다. 문교부는 사립학교들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같은 경우 학교를 분리하고 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장을 독립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교원 평준화를 위해 사립 중학교 교사들도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국가의 사립학교 교원 배정은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침해하는 것이었지만,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평준화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문교부가 사립학교 통제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고 5일 후 공화당은 사립학교 재단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교육 외적으로 사용하면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공표하였다.[133] 공화당은 10월 사립학교 납입금의 용도를 명문화하고, 납입금을 교육 외적으로 사용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통해 학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였다.[134] 문교공보위원회는 사립대학 운영실태 감사를 위한 사학국정감사도 시행하였다.[135]

학생선발권 박탈에 가장 크게 저항했어야 할 사학은 문교부의 사립중학교 통제 정책 지시와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아래에서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문교부가 사학의 반

133) 『東亞日報』, 「納入金流用 처벌」, 1968.7.20.(7)
134) 『京鄕新聞』, 「私立學校法改正案 이번國會通過方針)」, 1968.10.2.(1).
135) 『朝鮮日報』, 「私學國監10日부터」, 1968.12.5.(1).

발에 대해 사학에 대한 통제로 대응하였기에 사학의 완강한 저항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사학은 학생 선발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에 반박하지 못하고 문교부의 조치를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사립 중학교는 문교부의 통제 방침을 버티지 못하고, 국·공립 학교와 같이 재정원조를 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원조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학에 대한 강한 통제는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유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과열된 교육열은 냉각시키고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정책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8년 5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2개월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정책이었지만, 한국 교육에 많은 유산을 남겼다. 본 절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단선형 학제의 성격 강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학제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연한을 둘러싼 논의의 결과 1951년 2차 「교육법」 개정의 결과 제정된 것은 6-3-3-4제의 단선형 학제였다.[136] 교육법으로 6-3-3-4제 학제를 채택함으로써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연한이 결정되게 되었다.

국민학교 6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교육을 받아 고등교육 4년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의 6-3-3-4제의 단선형 학제는 근대적

136) 오성철, 『한국 학제 제정 과정의 특질, 1945~1951』, 한국교육사학, 2015, 50

인 중등교육이 먼저 도입되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의 복선형 학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유럽의 경우 계급적 성격이 강한 복선형 학제가 제정되었고, 학생들의 출신에 따라 진학하는 학교와 교육 내용이 구분되어 있었다.[137] 근대 서구의 중등교육에서는 하위 계급은 직업 교육을 받고, 상층계급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에서 고전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퍼블릭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상층 계급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고전 교양을 교육하는 중등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단선형 학제를 도입함으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들 사이에 근본적인 성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계급과 학교에 따라 배우는 과목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모든 학생은 시험을 통해 민주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법제적으로 단선형 학제를 표방하였지만, 1960년대 모든 학교가 명문대학교에 같은 비율의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를 필두로 한 명문대학교는 소수의 일류고등학교에서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서울대 합격자의 50% 이상은 서울 시내의 일류고등학교와 각 지방 명문으로 불리는 일류고등학교에서 배출되었다. 서울 시내 학교 중 명문대학교를 잘 보내는 일류고등학교로 뽑히는 고등학교들은 5대 공립(경기, 서울, 경복, 용산, 경동), 5대 사립(중앙, 양정, 배재, 휘문, 보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138] 그중에서도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는 3대 일류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전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등 명문대학교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일류고등학교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일류고등학교는 동계진학이라는 입학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류중학교-일류고등학교-명문대학교라는 출세의 길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기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계진학을 위해 학생들은 경기중학교 입학시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

137) 世界教育史研究會(編), 『世界教育史大系 25: 中等教育史 Ⅱ』, 講談社, 1976, 87-170
138) 강준만, 『입시전쟁잔혹사』 인물과사상사, 1998, 111

다. 1960년대 경기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일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은 명백히 다른 것이었다. 경기중학교-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로 대표되는 일류교 진학 코스는 복선형 학제를 선택하고 있던 영국의 이튼스쿨-옥스포드 대학교로 대표되는 복선형 학제의 엘리트 양성 코스와 계급에 따라 다른 학교와 계통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르지만, 입학하면 대체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중학교에 진학하는지에 따라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달라지고,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1960년대 중등교육은 단선형 학제의 성격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전기 중등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일류중학교를 폐지함으로써 일류중학교와 일류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류중학교에서 일류고등학교로의 동계진학이 가능했던 것은 일류중학교에서 시험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였기에,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일계 학교로 진학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가 성적에 따라 원하는 학생을 선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중학교의 수준은 더 이상 개인의 수준을 대변하지 않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은 중학교 사이의 학교차와 우열을 없앰으로써 동일 계통 학교 사이의 우열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사학의 준공립화 현상 초래

해방 이후 문교부가 국민학교 6년의 초등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국민학교 설립에 교육재정을 집중하면서, 중학교의 설립은 사립재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1960년대 국민학교 중 국·공립학교와 사

립학교의 비율이 9:1이었던 것에 반해, 중학교 중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은 6:4로 사립학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39] 중학교 입학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던 서울 시내 중학교로 한정하면 사립학교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1968년 서울 시내 중학교는 총 135교였는데, 이 중 국·공립은 32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교는 모두 사립학교였다.[140]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사립재단이 설립한 학교로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구분된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이전까지 교육법 제77조 2항에 따라 중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각 학교장에게 있었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사립학교들은 각 학교의 설립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을 선별하여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면서 사학의 학생선발권은 문교부에 의해 박탈되었다.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학생들은 추첨에 따라 배정되었다. 사립학교 중 학생선발권 박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은 종교재단이 종교의 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들이었다. 종교의 이념을 반영한 교육방침을 세우고 있던 사립학교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추첨에 따라 배정받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종교와 배치되는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도 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받거나, 본인의 종교와 배치되는 종교 교육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학의 학생선발권 박탈로 사학은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기반을 잃게 되었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패가 교원과 시설 평준화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의 평준화에 강하게 개입하였다. 문교부는 사립

139) 문교부, 『문교통계요람 1964』 , 대한민국 문교부, 1964, 30-63
140)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68』 , 서울특별시, 1969, 234

중학교 교원의 질을 점검하고 사립학교 교원 중 자격이 없는 무자격교사와 비전공과목 교사를 정리하고 유자격교원도 교원평준화를 위해 재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문교부는 평준화의 명분으로 신규 교원 임용에도 관여하였다. 기존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권은 각 사립학교에 있었다. 하지만, 문교부는 중학교 교원 평준화를 위해 사립 중학교 교사들도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였다. 사립 중학교는 학생의 선발권과 신규 교사 채용권을 모두 박탈당하며 자율성이 위축되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위축은 한국의 전기중등교육에서 사학이 만들어 내는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평준화와 시설 정비는 요구하는 한편, 중학교 운영이 어려워 시설이 미비한 사립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지만, 사립중학교가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운영을 부실하게 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국가에서 인수하겠다고 강하게 사립학교를 압박하였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같은 결과를 요구받으면서 국·공립학교가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사립학교 통제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재단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교육 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는 1968년 이전 사학재단의 비리가 야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 맞물리면서 사립학교를 더욱 압박하였다.

해가 거듭되며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학이 늘어나면서 사립학교들은 자주성이 침해된 것에 반박하지 못하고 문교부의 국·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원조를 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학이 국가의 교육 간섭에 저항하지 못하고, 국공립학교 재정 원조를 요청하게 되면서 한국 사학은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에 의한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사학은 설립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사학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사학은 서구의 중등교육 역사 속 사학의 모습과 다른 공립학교에 가까워지는 한국 사학의 독특한 준공립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3) 교육열 가열과 중등교육의 팽창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과열된 중학교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일류중학교 진학을 지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교부가 도입한 제도였다. 문교부는 제59회 국무회의에 보고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중학교 입시제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국민학교 교육은 중학교 입시 준비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신체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인격형성에도 결함이 초래되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교부가 중학교 입시경쟁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류교를 향한 교육열의 과열이었다. 문교부는 중학교 입시경쟁의 과열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일류중학교에 집중됨에 따라 학생들이 일류중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교육열의 과열을 거론하였다. 국회에서 교육법 개정 논의를 할 때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교육열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입시개혁이라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목표를 설명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문교부의 목표대로 한국의 교육열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까?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자, 이듬해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서울에서는 중학교 진학희망자는 2만명이 증가하였다. 정책 발표 이전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8만 6천명

이었던 것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 이후 10만 4천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중학교 진학 희망자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발표를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자극하는 정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중학교 진학희망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진학률을 확인해 보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영향이 없었던 기간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는 시기를 함께 비교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3년 전인 1965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3년이 지난 1974년까지 중학교 진학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중학교 진학률 추이 (1965-1974)

(단위: %)

연도	중학교 진학률
1965	51.5
1966	55.2
1967	56.0
1968	58.4
1969	63.7
1970	67.8
1971	69.2
1972	68.9
1973	72.3
1974	75.4

(※출처 : 1966-1975 문교통계연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기 전까지 중학교 진학률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1972년을 제외하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되고 중학교 진학률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은 중학교 진학률은 예년에 비해 0.3% 감소하였지만, 실제 중학교 진학자는 예년에 비해 5만 1천명 증가하였다. 중학교를 지망하면 학군 내에서 추첨을 통해 누구나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면서 중학교 진학률은 상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교 지향성을 약화시키고 교육열을 냉각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진학 욕구를 자극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열을 가열시켜 한국의 전기 중등교육을 팽창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계기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보편화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한국의 전기 중등교육을 선별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한국 사회의 일류교를 향한 교육열도 냉각시키지 못하였다.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의 본질은 일류중학교 지향성에 있었다. 일류중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일류고등학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동계진학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1960년대 일류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류고등학교, 그리고 명문대학교로 입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중학교를 사라지게 하였지만, 일류고등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일류교를 향한 교육열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하였다. 중학교 시험에서 발현되지 못한 일류교를 향한 교육열은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그대로 재현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당초 정책의 목표였던 일류교를 지향하는 교육열은 냉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급학교 진학을 향한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한국 중등교육에 남기게 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68년 문교부가 발표하고 1969년도부터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하고, 한국 중등교육사 속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이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선별장치 역할을 하고 있던 일류중학교와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이후 한국 중등교육에 독특한 유산을 남겼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 과정의 특징과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규모를 보여주는 문교부의 통계자료와 중학교 입시경쟁 양상과 입시준비 과정,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그리고 정부의 중학교무시험 진학제도 논의 과정과 도입과정을 보여주는 국회와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 상황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 문교부의 정책은 국민학교 의무교육 확충에 집중되었고, 중학교는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용능력이 부족하였다. 1960년대가 되면서 중학교의 수용능력은 높아졌고, 1960년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한정하면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일류중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류중학교는 일류고등학교로 동계진학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은 일류중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 중학교 입시경쟁은 단순히 중학교에 진학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류중학교의 엘리트 선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중학교 입시 준비는 일류중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과, 높은 중학교 진학률로 학교 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함께 작용하며 더욱 과열되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방과 후 공부와 과외 수업을 받았고, 방학에도 중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학생들은 입시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인 교과서 외에도 부독본과 프린트까지 공부하였다.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잠을 줄이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면서까지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였다. 학부모들은 정서적으로 학생들의 수험생활을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녀가 과외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는 6학년 전문 교사를 두고, 잦은 배치고사를 통해 진학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교사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과외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시 준비 과정이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에서 중학교 입시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중학교 입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은 과외 반대 운동, 학원 정화 운동으로 나타났다. 문교부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의 과목과 범위를 개정하였다. 문교부는 학생들이 과외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만 출제하겠다는 원칙과 문제은행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문교부의 입시제도 개혁 노력에도 1968년까지 일류 중학교 입학을 향한 열기는 냉각되지 않았다.

Ⅲ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교부가 중학교 입학시험의 출제 범위를 교과서로 제한하여도 중학교 입시 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학시험을 없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무시험 진학제도가 건의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교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확장하기에는 중학교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1968년 4월 대한 교련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건의안에도 문교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8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시책의 능률적인 시행을 위해 문교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년도 입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은 권오병 장관은 문교부 전체에 함구령을 내려 문교부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외부로 정책논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소수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과정 없이 대통령의 최종 인가를 받아 승인되고 발표되었다.

권오병 장관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 목적과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국무회의와 문교공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에서 문교부는 현재 중학교 입시 준비교육이 치열한 것은 학생들의 일류중학교 입학 목적 때문이며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일류중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교부는 국민학교의 입시준비 교육으로 학생들이 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격형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교부는 행정구역과 현존 국민학교를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학교군 내에 있는 중학교 입학 지원자를 추첨에 의하여 진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학교군에는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늘어나는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수용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을 70명으로 상정하고, 중학교 증설계획도 수립하였다. 문교부는 3년에 걸쳐 일류중학교들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2회에 걸친 문교공보위원회의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으로써 이듬해 입시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9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중학 진학 공납금을 납금하고 정해진 날짜에 진학하게 될 학교를 뽑는 추첨제 방식이 적용되었다. 문교부는 추첨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재수하면 이듬해 추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정해진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였

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학교들 사이에 시설과 교원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으며, 일류중학교로 분리된 학교들은 196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일류중학교로 불리는 학교들은 1971년 5개 학교, 1972년 14개 학교가 폐지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입시 준비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뻐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발표되고 국민학교 학생들은 과외 공부를 그만두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입학시험의 폐지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트렸다. 국민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습을 요구하거나, 학교 수업에 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교사들은 과외를 통한 음성 수입이 줄어들었음을 아쉬워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국민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가장 반대했던 것은 학생 선발권을 박탈당한 사학이었다. 문교부는 사립학교의 반대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립학교를 통제하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추진하였다.

Ⅳ장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교육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의 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교육의 정상화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준비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 도입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 부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국민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문교부의 논리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 제도의 입안과 시행 과정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입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와 학교들은 문교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의무교육제 확대, 그리고 평준화라는 논리 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중학교의 수용능력 부족과 평준화 미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학생이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자 중학교 공납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함으로써 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문교부가 부족한 중학교 수용능력임에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사전 준비 부족을 가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대해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발하였다. 문교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학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문교부는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교부는 반발하는 사학에 경제적 원조를 끊는 방식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통제하였다. 국·공립 학교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미비한 사립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학들은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의 박탈에 반발하기보다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선택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을 냉각시키고, 일류지향성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한국 중등교육에 남겼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의 단선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은 서양이 중등교육 학제를 복선형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6-3-3-4의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단선형 학제는 학교 계통이 단일의 계통으로 일원화되어 계층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열려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법에서 지정된 단선형 학제만 보면 영국의 퍼블릭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과 같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한국 중등교육에는 명문대학교 진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고등학교들이 존재했다. 일류고등학교는 동계진학이라는 입학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류중학교-일류고등학교-명문대학교라는 출세의 길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일류중학교를 폐지함으로써 일류중학교와 일류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으로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좋은 공식적인 길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류중학교의 폐지는 한국 중등교육의 단선형 학제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한국 사학의 준공립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중학교의 설립은 사립재단에 맡겨져 있었다. 국민학교가 대부분 국·공립이었던 것에 반해,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전까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중학교는 학교 설립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학교가 원하는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선발하고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시행으로 사학은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사립학교는 행정적으로는 문교부에 국·공립학교처럼 평준화를 위한 통제를 받으면서, 사학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였다. 사학은 문교부가 요구하는 평준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위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사립학교 통제에 저항하지 않고, 국가에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학은 자율성이 줄어들고, 준공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로 인한 사학의 자주성 위축은 한국 중등교육에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의 냉각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고 중학교 진학 희망자는 문교부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중학교 진학률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이전까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중학교 입학시험이라는 선별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누구나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 중학교에 지망하면 추첨을 통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학교 진학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류중학교를 향한 교육열을 냉각시키려고 도입한 추첨을 통한 입학방식과 일류중학교의 폐지는 한국의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중등교육이 팽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교육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지만,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와 일류중학교 폐지 정책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단선형 학제의 성격 강화와 한국 중등 사학의 준공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 단계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구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 목표였던 한국의 교육열 냉각과 일류지향성 폐지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열의 가열을 초래한 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영향을 신문과 정부 회의록, 통계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문헌 사료들을 통해 당시 교육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1960년대 중학교 입시경쟁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교육 현장에 있던 교육 주체들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는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교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동기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당시 학생의 내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술사 연구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될 때 일류중학교를 지망하던 학생들과 일류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고 국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를 통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한국 중등교육을 겪는 학생들에게 내면적으로 미친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과정을 재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고교평준화 정책」과의 정책적 유사성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같은 정부 아래에서 시차를 두고 발생한 입시정책이었다. 두 정책 모두 학생 선발 원리를 바꾸고,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전기 중등교육에서 선발 원리를 바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후기 중등교육의 선발 원리를 바꾼 고교평준화 정책이 비교되어 논의될 때 두 입시 정책이 한국 중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도입 논리, 도입과정과 제도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 중등교육의 입시정책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교육 주체 중 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관점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미친 영향을 탐구하였기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현직 교사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은 국민학교 교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학교 교원의 이직은 교육계에 던져진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로 인한 교원 처우 개선 문제는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 재정의 관점에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결과 발생한 교원 처우 개선 문제와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학생 선발 원리의 변화가 교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문교월보』『새교육』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교통계연보』『서울통계연보』
『제59회 국무회의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2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7대국회 제67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연구물>

Michael J. Seth,『Education Fever』, 유성상 옮김, 학지사, 2002.
강대중,「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교육비평』, 8, 2002, 56-74쪽.
강무섭,「한국의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대한사립학교장회, 1994 여름 통권 69호, 1994, 108-120쪽.
강상진 외,『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RR 2005-2, 한국교육개발원, 2005.
강영혜 외,『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RR 2005-9, 한국교육개발원, 2005.
강일국,「1950년대 중학교입시제도개혁의 전개과정」,『아시아교육연구』,

5(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4, 195-217쪽.
강준만,『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사상사, 2009.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2004.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2004.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2002.
강창동,『한국의 교육문화사』, 원미사, 2013.
강태중,「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아시아교육연구』, 9(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137-159쪽.
경기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단 학술위원회,『한국중등교육 100년: 과거 · 현재 · 미래』, 학지사, 2000.
고맹선,「중학교 무시험 진학문제를 조상에 놓고」,『교육제주』, 1970, 76-89쪽.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교육50년사』, 교육부, 1998.
교육개혁위원회,『한국교육개혁백서(1994~1998)』교육개혁위원회(인쇄 청운기획), 1998.
김기석,「유상중등교육의 팽창」, 김신일 외,『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1987.
김병성 외,『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RR84-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4.
김영우,『학교제도: 한국 근대 학제 100년사』,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95.
김영우,『한국 초등교육사: 한국 근 · 현대 초등교육 100년사』, 한국교육사학회, 1999.
김영철 외,『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2007.
김영화 외,『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Ⅰ): 연구 모형의 설정과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 분석(1945~1995)』, RR 96-5, 한국교육개발원, 1996.
김영화 외,『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1945-1995)』, RR 97-9, 한국교육개발

원, 1997.
김영화 외,『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RR 93-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김용일,「고교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의미」,『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86-101쪽.
김용하·임성은,「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보건사회연구』, 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6-59쪽.
김인희 외,「해방 이후 반세기의 현장 자료 분석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치역학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001, 21-92쪽.
김일영,「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정성화 편,『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대한교육연합회,『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추후연구-9개 도시 실시결과 평가와 개선방안』, 1970.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의 교육과 중등 사학』, 한국문화사, 2004.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박명림,「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역사비평』, 96(가을), 2011, 109-139쪽.
박상만,『한국교육사』, 대한교육연합회, 1959.
박재윤 외,『2004 학교교육법편람』, 한국문화사, 2004.
브루스 커밍스,『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손인수,「한국교육 50년소사」,『한국사상과문화』, 2, 한국사상문화학회, 1998, 319-341쪽.
오성철,「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역사문제연구』, 11, 2003, 53-80쪽.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오성철 외,『대한민국교육 70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5.
오천석,「한국신교육사」,교육과학사, 2014.
윤종혁 외,『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 RR2003-01,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2003.
윤종건,『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과제와 전망』, 원미사, 2006.
이관수,「각급학교입시제도개혁에 대한 소고: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개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立法調査月報』, 1973, 141-146쪽.
이길상,『20세기 한국교육사』, 집문당, 2007.
이영훈,『대한민국역사』, 기파랑, 2004.
이정규,『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2003.
이종각,『교육열 올바로 보기』, 원미사, 2003.
이형빈,「고교 평준화의 위기와 평준화 개념의 재정립」,『교육비평』, 31, 2013, 10-36쪽.
이혜영 외,『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RR 98-8, 한국교육개발원, 1998.
임지현·김용우 엮음,『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정무용,「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역사문제연구』, 2013, 111-135쪽.
정영수,『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RR86-33, 한국교육개발원, 1986.
정재걸,「제3공화국 교육개혁과 정치」,『교육정치학연구』, 1996, 25-41쪽.
정재황,「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20(3), 한국헌법학회, 2014, 119-163쪽.
정현승,「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교육법학연구』, 14(1), 대한교육법학회, 2002, 141-164쪽.
조희연,『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2010.
최병택,「해방 이후 의무교육 요구와 정책의 전개 방향」,『대구사학』, 125호, 대구사학회, 2016, 209-241쪽.
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한국교육100년사: 교육사건편』, 교육신문사, 1999.

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육100년사: 자료편』, 교육신문사, 1999.
한국교총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총6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
한영환 · 이기호, 「과외비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5(1), 2001, 125-147쪽.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역사』, 62, 2002, 169-203쪽.

Abstract

The study of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in 1969

Park, Su hwan

Major Advisor: Kwak, Duck-Jo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68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on Korean secondary educ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Korean society and the competition for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s in the 1960s, and examines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and the impact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on Korean secondary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the size of national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the 1960s; newspaper articles on the competition for middle school entrance exams,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exams, and reactions to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and minut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n the process of discussing and introducing the government's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Here's a summary of the results.

In the 1960s, the competition for middle school applications tended to be skewed toward the top middle schools that offered winter admission to top high schools. Preparation for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was intensified by students' and parents' eagerness to get into top middle schools and by schools' and teachers' efforts to improve their reputations through high enrollment rates.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has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for being overwhelming to the point of deteriorating health. The Ministry of Education reformed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o allow students to take the exam only from textbooks and to use the question bank method to eliminate the need for tutoring. Although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was based on textbooks, tutoring and preparation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continued.

Proponents of the exam-free system argued that eliminating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 would reduce the burden on stud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skeptical. It argued that the capacity of middle schools was insufficient and that it was impractical to introduce a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and expand compulsory education. In April 1968, the ministry rejected a proposal to allow middle school students to enter middle school without an examination.

The idea of allowing students to enter middle school without taking an examination was discussed in earnest in May 1968, when President Park Chung-hee changed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streamline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initiatives. Minister Kwon Oh-byeong, who was assigned by President Park to decide on the next year's entrance examination, issued a gag order on the entire ministry to prevent the policy from being discussed outside the ministry.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discussed in a small policy council formed by Minister Kwon.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secretly prepared and approved and announced with the final approval of the president without any communication with the education field.

Although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announced to the public after a brief two-month discussion, it was introduced and promoted in an authoritarian manner under the idealistic goal of normalizing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preparing for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logic of normalizing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the face of negative social attitudes toward the heavy burden of entrance examinat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de it difficult to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Because it was an ideal goal,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as not opposed, but rather criticized for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its implementation.

The ministry addressed the lack of capacity and unevenness of middle schools, which had been identified as problems with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by adhering to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Since more students wanted to enter middle school than the ministry had originally planned, the ministry tried to reduce the number of applicants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s of middle schools based on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gav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ower to push through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despite the lack of capacity of middle schools, and it also masked the lack of preparation for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Private schools reacted to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by saying that it infringed on the right of private schools to select stud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tightly controlled private school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The ministry argued that while the right of private schools to select students is important, the priority should be to normalize the education of public school students. The ministry controlled dissenting voices by cutting off economic aid to dissenting private schools. It ensured that only government schools could receive government support and that poorly equipped private schools could not accept new students. Rather than react to the loss of their autonomous right to select students, private schools took the pragmatic route of asking the state for economic aid.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has had unintended effects on South Korean secondary education that are at odds with its original goal of cooling education fever and abolishing the top-down system. First,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reinforced the one-dimensional nature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Unlike the bi-linear organiz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the West, South Korea had adopted a 6-3-3-4 single ladder system similar to Japan. The single ladder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school system is unified into a single system and education is open to students regardless of class. Based on the single ladder system stipulated in the Education Act, it would seem that there were no elite institutions such as the Public Schools in Britain, the Lycée in France or the Gymnasium in Germany. In reality, however, there were high schools in Korean secondary education that produced the majority of students who went 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The first-class high schools adopted a winter admission method, which created a path for students to advance through the ranks of first-class middle schools, first-class high school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abolished the first-class middle school, breaking the link between the first-class middle school and the first-class high schoo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there was no formal way to enter a top high school. The elimination of elite middle schools reinforced the single ladder system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Another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is that it has led to the semi-publicization of Korean private school. After independence, the establishment of

middle schools was left to private foundations. While elementary schools were mostly national or public, middle schools were 45% private. Since middle school education was not compulsory prior to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middle schools selected students who fit the ideology of the school's founding or who received the grades desired by the schoo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xamination-free system, private schools can no longer select the students they want,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run their own educational programs. Administratively, private schools were subject to the same leveling controls as state and public schools, but their autonomy was not recognized and they received no financial subsidies. In order to maintain their status, private schools had to meet the leveling requireme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ather than resisting state control of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submitted to state control by seeking economic aid from the state, resulting in their diminished autonomy and semi-publicization. The loss of autonomy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led to the reduc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Korean secondary education.

Finally,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a policy aimed at cooling the educational fever, but paradoxically it had the effect of heating it up. After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announced, the number of middle school applicants increased to a level that exceed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expectations, and in fact, the middle school entrance rate increased rapidly after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free system was implemented. Prior to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free system, middle school was

not compulsory, so only those who passed a screening process called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could enter middle school.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has lowered the threshold for entering middle school by allowing anyone to apply for middle school without taking the examination and be selected by lottery. The lottery system and the abolition of first-class middle schools, which were introduced to cool down the fever for first-class middle schools, heated up the fever for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and led to the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at although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was implemented as a policy to cool down the educational fever, the abolition of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abolition of first-class middle schools actually led to the unintended strengthening of the single ladder system and the semi-publicization of Korean secondary private school. Moreover,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fueled educational fervor in Korea by becoming a system that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elites and non-elites from middle school, leading to the rapid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We hope that this study on the impact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on Korean secondary education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future studies on Korean entrance examination policy and education policy.

keywords : educational fever, admission system, Park Chung-hee, 1960s, middle school admiss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s

Student Number : 2021-24731